

제3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수상마을 사례집

함께만들어요
행복한
우리마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제3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수상마을 사례집

Contents



단혀있던 시간보다 열려있는 시간이 더 길었던 우리집 때문
정다운 이웃과 함께였기에 더 즐거웠던 나날들,
소박한 꿈이 있어 더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소득 체험



금상
경남 합천군
양덕메마을



은상
전북 완주군
안덕마을



동상
충남 당진시
올미마을



입선
경기 용인시
학일마을



입선
충북 영동군
임계마을

문화 복지



금상
충남 태안군
만대마을



은상
경남 밀양시
신안운심문화마을



동상
경북 칠곡군
어로1리 마을



입선
충북 충주시
수희마을



입선
부산광역시
대흥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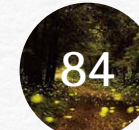
경관 환경



금상
경남 하동군
매계마을



은상
전북 진안군
두원마을



동상
제주 제주시
청수리마을



입선
강원 횡성군
어둔리마을



입선
전남 영암군
구림마을

농촌 공동체



금상
제주 서귀포시
신도2리마을



은상
경북 상주시
밤원마을



동상
충북 증평군
통미마을



입선
전북 임실군
중금마을



입선
전남 광양시
지랑마을

행복만들기 발자취를 널리 나누며

총괄심사위원장 최 수 명(전남대 명예교수)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 마을』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마을 공동체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마을 만들기 활동을 조장하고, 그 성과를 평가·공유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행복마을 콘테스트의 목적이다. 농촌지역개발, 그 중에서도 마을 만들기는 마을 스스로의 깨우침과 함께, 다른 마을의 훌륭한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학습하여야 마을 만들기 방법과 콘텐츠가 더욱 더 업그레이드 되고, 지역 및 국가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시장도움행동(Action for Market Town)’이 주관하여 해마다 ‘시장도움 진흥대상(Market Town Awards)’을 시상하였고, 또한 유형별로 모델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그 성과를 담은 ‘시범사례집(Beacon Towns)’을 발간하므로서 성과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3~6월에 주민과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군의 1차 평가 및 추천, 시·도의 2차 평가(예선),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3차 평가(현장 종합평가)를 거쳐, 지난 8월 31일 드디어 4차 평가(결선) 까지, 근 반년의 장정 끝에 시·군(읍면) 부문, 2개 분야 10개팀, 마을 부문, 4개 분야 20개 팀의 시상이 이루어졌다. 경쟁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콘테스트의 성격상, 금·은·동상 및 입선으로 굳이 구분하여 시상할 수 밖에 없었지만, 참가한 모든 팀이 똑 같은 수상자이고, 마을 만들기의 선도자임에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음을 추억한다.

행복마을 콘테스트는 2014년, 첫 대회부터 예상을 뒤엎는 참여 열기와 마을 주민 및 지자체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 그리고 혁신적이고 내실있는 콘텐츠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러한 첫 대회의 열기는 2, 3회 대회에도 더욱 확산되어, 대회를 거치는 동안 콘테스트 참여마을은 첫 회, 1,891개 마을에서 2회에는 2,017개 마을로, 3회인 금년에는 2,664개 마을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정량적인 성과와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도, 첫째의 성과를 행복마을 만들기 과정과 성과의 정립으로 본다면, 2회에는 이의 확장으로, 그리고 3회째인 금년에는 성과의 심화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회째인 금년도 행복마을 콘테스트에서 특히 두드러진 마을 만들기 노력은 지난 날의 아픔과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공동체적 대응을 통해 새로운 마을발전의 동력으로 승화시킨 사례이다. 이는 단순한 노력과 성과를 넘어 우리 사회 모두에게 진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지역 문제에 대한 전혀 새로운 시도이다. 사례 발표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진 것은 비단 심사위원장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문화·복지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한 태안군의 ‘만대마을’은 유류유출 사고라는 치명적 비극을 맞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단합과 능력있는 출향인 영입

을 통해 문화활동으로 마을의 아픔을 치유함은 물론이고, 오히려 새로운 마을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감동이 그 것이다.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던 마을을 주민의 힘으로 되 살린 서귀포 ‘신도 2리마을’도 또 다른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지역 특유의 품앗이 형태인 ‘수눌음’을 통해 각종 쓰레기, 잡초 및 폐비닐 등을 수거하고, 이렇게 구축된 공동체의 추진 잠재력에 바탕하여 주민 스스로 기획 및 운영하는 ‘모드락 축제’를 개최하고 함께 가꾸므로서 마을 만들기의 새로운 지평을 보이고 있다. 환경보전이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한 일이 아닌 바로 주민 및 공동체 자신의 일이라는 새로운 주민의식의 태동을 느낄 수 있어 진한 감동이 밀려 왔다.

다른 수상 마을들도 마을 만들기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주민의 적극적 참여임이 확인되고 있다. 소득·체험 분야의 합천군 ‘양땃메마을’의 경우, 6차산업화와 도농교류에서 전 과정을 주민이 주도하고 있으며, 경관·환경 분야의 하동군 ‘매계마을’의 경우는 주민과 귀촌인이 다양한 경관조성 활동을 서로 협력하여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주민 참여와 함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 및 적용을 위해서는 귀농·귀촌인 등 새로운 피의 수혈이 함께 하여야 함은 첫 대회부터 일관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대세이다.

마을 만들기 시책 추진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조직화 및 체계화 되고 있다. 거창군은 지자체 차원에서 마을만들기 마스터플랜 수립은 물론이고,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므로서, 4,000명이 넘는 귀농·귀촌인 유입 성과를 거두고 있고, 서귀포시 안덕면은 주민참여 환경감시단 운영 및 꽃길 가꾸기 등을 통해 적극적인 마을가꾸기 사업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에서도 설명하였지만, 이러한 수범사례는 그 성과가 확산 및 활용되지 않는 한, 마을 만들기 전체의 동력을 끌어 올리는데 별로 도움을 줄 수 없다. 최소한 이 행복마을 콘테스트에 참여하였던 2,664개 마을(금년 기준)에는 수범사례가 전달되어, 왜 자신들의 마을이 수상의 영광에서 제외되었는지 되돌아 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차후 대회 참여를 위해서는 무엇과 어디를 보완하거나 추가 또는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지를 사례를 통해 반추케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마을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수범마을의 마을 만들기 추진과정과 성과를 들여다 보고, 적용 및 활용 가능한 보다 정밀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일명 ‘수범마을별 마을만들기 사업지’ 등과 같은 자료집의 편찬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대회부터 심사위원장을 맡아 현장에서 주민 및 지자체 담당자들의 밝고, 자신에 찬 모습을 목도하고, 같이 즐거워 하며, 짧지만 행복한 하루를 보냈던 추억은 되새길수록 행복하여 진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우선, 우리의 머리 보다는 가슴에 행복감이 먼저하여야 함을 재삼 되새긴다. 행복마을 콘테스트를 통해 농촌마을 주민과 함께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農者之 天下 大本’의 길을 우리는 본다.

01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경쟁분야

소득체험

경남 합천군 양덕메마을 **금상** 08

전북 완주군 안덕마을 **은상** 14

충남 당진시 올미마을 **동상** 20

경기 용인시 학일마을 **입선** 26

충북 영동군 임계마을 **입선** 32



금상



'생산-가공-판매'로 이어지는 6차 산업의 우수 사례

합천 양떡메마을

마을의 비전을 단순히 '소득 증대'에 두지 않고, 마을에서 재배한 농산물의 판매, 주민 일자리 창출, 문화·복지 확대 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양떡메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 위치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국사봉로 902(상대리 하남마을)
👤 인구수	115명
🏠 가구수	52가구
🌿 마을 자원	마새미, 큰샘, 당산나무, 양떡메 가공상품(양파즙, 떡가래, 메주), 공동가공시설, 마을공동급식소,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 행복마을 성공비법	• 농가소득 증점사업으로 커뮤니티 활성화 • 양적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에 중점 • 한 식구로 함께 잘 사는 마을이기를!



농가소득 중점사업으로 커뮤니티 활성화

양떡메마을은 2000년 초반부터 쌀 소비의 감소, B급 양파의 처치곤란 등으로 농가소득이 지속적으로 줄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영향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는 농민들의 사기 저하와 농가복지 혜택의 감소로 농민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떡메 마을은 2003년 여성 이장선출을 계기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2005년 농촌 건강장수 마을사업을 신청하여 농산물 가공 공동 소득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판로를 찾기 어려웠던 양파와 쌀, 콩으로 양파즙과 떡, 메주를 만들어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흔한 지명이었던 하남을 버리고 앞글자를 따 양떡메마을로 이름까지 바꾸며 판로를 개척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직접 생산한 건강한 농산물에 대한 자부심과 “생산-가공-판매”로 이어지는 6차 산업 전 과정을 마을주민이 직접 하다 보니, 질 좋은 가공품을 시중보다 약 30%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되어 마을소득은 점차 늘어났고 현재는 도 시민 직거래 고객 10,000명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양떡메마을은 소득을 올리지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한 발상이 아닌 소득사업에서 소외되는 농가가 없어야 한다는 목표로 마을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농가 보다 영세농가와 소규모 농가 등, 소외계층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해 소득 재분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양적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에 중점



두 번째로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을 가공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고, 현재 가공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주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확장 대신 선택한 수익의 환원은 결국 마을의 공동복지사업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안정적인 수입이 생겨나게 되고, 마을 복지에 기여하게 되어 전 주민이 매일 점심식사를 함께 하는 무료공동급식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마을 자체 기금으로 노인의 날 행사, 농촌축제, 댄스/풍물놀이 등 문화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게 되어 와해되었던 마을 커뮤니티가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합천 양떡메 마을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하는
식구처럼’ 잘 살고,
‘건강한 자립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식구로 함께 잘 사는 마을이기를 !

도시인들이 농촌을 살고 싶은 곳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도 도시보다 농촌은 공동체의 가치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양떡메마을도 이러한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는 마을 가운데 한 곳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하는 자립공동체, 살기 좋은 양떡메 마을”을 비전으로 세워 3대 추진전략(소득·문화·복지, 홍보·운영)을 설정하여 마을발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짜여진 마을의 목표는 마을 주민을 한 마음으로 뭉치게 만들고, 서로를 보살피고, 행복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떡메 마을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하는 식구처럼’ 잘 살고, ‘건강한 자립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을 소득·체험사업의 1차적인 목표를 단순히 ‘소득 증대’에 두지 않고, 마을에서 재배한 농산물의 판매, 주민 일자리 창출, 문화·복지 확대 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잘 사는 마을’이라는 작은 목표를 향해 꾸준히 성장할 것입니다.



합천 양떡메 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앞으로 마을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우리 마을에서 가공·판매되는 제품의 신뢰를 더 높이기 위해 HACCP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장류 체험사업을 추가로 개발하여 수익구조를 더욱 다양화하고 싶습니다. 이런 소득증대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 현재 마을공동 급식시설을 리모델링하여 2018년부터는 점심 한 끼가 아닌 저녁까지 무료공동 식사를 제공하여 매일 150명의 마을 주민들이 함께 행복한 식사를 마주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양떡메마을 주변 마을주민과 도시민, 향우들과 교류하기 위해 양떡메마을 팜 파티를 매년 개최할 계획입니다. 팜 파티는 마을 공동체를 더욱 단결 시켜주는 것은 물론, 도시를 통한 판로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성과조사 -

마을사업성과

① 소득 실적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예정)	2017계획
방문객 수(명)		500	1,215	1,241	1,300	1,500
소득 (만원)	수입	33,800	36,300	37,480	41,000	45,000
	지출	33,140	30,740	32,780	35,000	37,000
	순수익	2,830	5,560	4,710	6,000	8,000

② 공동체 활동 실적

동아리		하남양떡메 영농조합법인	하남 체육회	하남 부녀회	복합체조	농악	공동급식
회원 수(명)		42	45	23	40	25	50
활동 실적 (회)	2015	24	12	12	24	36	260
	2016	20	10	11	20	30	230
	2017계획	24	12	12	24	36	260

③ 일자리 창출성과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계획
일용직근로자(명)	14	15	16	16	20
상근근로자(명)	2	3	4	4	5

정부 지원실적

지원사업명	지원연도	지원부서	지원금액(백만원)	비고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	2005	농림축산식품부	132	5(자부담)
정보화마을사업	2008	안전행정부	300	-
마을기업사업	2010~2011	안전행정부	110	35(자부담)
농어촌 공동체회사	2016	농림축산식품부	38	12(자부담)



은상



연간 6만명이 찾는 건강힐링 체험마을

완주 안덕마을

항상 변하는 도시민들의 소비성향과 트렌드에 걸맞는 홍보방법을 위해 상품에 스토리라는 옷을 갈아 입히고 건강힐링 체험마을이라는 컨셉으로 한의원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체험프로그램과 건강힐링 교실을 운영하는 안덕 마을

‘안덕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 위치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95
👤 인구수	312명
🏠 가구수	150가구
🌿 마을 자원	황토한증막, 황토펀션, 한의원, 모악산 등산로, 어드벤처 체험장 등
🏆 행복마을 성공비법	• 주민출자금으로 시작한 마을사업 •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 적극적인 홍보와 스토리텔링 마을



주민출자금으로 시작한 마을사업

모악산 도립공원에 속해 있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안덕마을은 과거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고 특별한 소득원이 없던 침체된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마을사업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고민하게 되었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된다는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힐링 체험을 테마로 정하고 금광으로 사용하던 폐광을 한증막으로 개조하여 임대 운영하면서 반신반의 하는 마을 주민들을 하나하나 설득해 마을 회사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53가구가 참여 1억3천50만원이라는 자본금으로 출발하게 되었고 2015년에는 73가구가 참여하여 자본금은 2억 5백만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마을은 출자한 마을주민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 주인 의식을 가지고 마을이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안덕마을은 전국적으로 소득체험분야로 유명한 농촌마을이 되었고, 이제는 연간 6만명 이상이 찾는 마을이 되어 명실상부한 성공한 견학마을로 발전하였습니다.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안덕마을은 '한증'과 '힐링'을 주제로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특히 주민손으로 완성한 요초당과 황토방의 전통문화 체험장을 활용해 숙박시설로 운영하여 5명의 일자리와 매월 15백만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방문자가 매년 늘어나면서 현재는 150여 명이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였고, 마을에서 길러낸 싱싱한 로컬푸드를 활용한 웰빙농가 식당을 운영하여 여기서도 5명의 일자리와 월 30백만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소득원인 한증막 뒤편에는 옛 금광굴을 활용한 동굴형 이색 한증막을 운영하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 지금은 언론에서 집중 취재를 하는 등 홍보 효과까지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고민하여 만들어낸 식이요법 강의와 건강힐링 체험교실, 두부체험, 천연염색, 정글체험, 전통과 힐링을 결합한 전통문화체험 등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12명의 상근인력을 운영하여 마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와 더불어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입하여 활용함으로써 판로를 개척하는 등 주민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마을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완주 안덕마을은
로컬푸드를 활용한
웰빙농가 식당을 운영하여
여기서도 5명의 일자리와
월 30백만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스토리텔링 마을

안덕마을은 2013년 네이버 실시간 검색순위 1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순위 1위를 농촌마을이 했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안덕마을에서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스토리텔링 때문입니다. 안덕마을의 자원들과 체험프로그램에는 모두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에 중점을 두고 상품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상품이더라도 스토리를 꾸준히 만들어 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안덕마을이 스토리텔링에 열중하는 이유는 마을의 상품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균일한 품질을 유지해야 하지만 도시민들의 소비성향과 트렌드는 변하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홍보방법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품에 스토리라는 옷을 갈아 입히고 도시민들에게 항상 새로운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상품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게 안덕마을의 홍보전략입니다. 마을총장님도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SNS친구도 몇천명에 달할 정도로 폭넓은 인맥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SNS를 이용하여 작가들이 관심 있어 할만한 소재를 다뤄 먼저 연락이 오게끔 만들어 그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완주 안덕 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앞으로 마을이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A 농촌체험마을에서 더 성장한 웰빙 테마파크 조성으로 농촌관광체험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농촌의 기능을 실현하는 자립형 농촌마을로 농촌성장 모델 구현마을이 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강화하고, 도농교류를 더욱 활성화 하여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경관 개선과 역량강화를 꾸준히 실시하여 지속적인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실시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확장으로 교육장 등록을 통해 교육장 이용율을 확대하고, 활동펜션을 리모델링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등 현재의 우리마을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완벽할 순 없겠지만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할 것입니다.

- 성과조사 -

마을사업성과

① 소득 실적

(단위 :천원)

연도	체험	음식	숙박	농산물	계
2013	239,614	175,308	198,372	96,442	709,737
2014	269,064	276,500	235,550	37,709	818,823
2015	202,220	248,949	188,682	54,690	698,000

② 체험소득

연도	단체객		일반인	기타	계
	단체수	명			
2013	205	8,696	41,500		50,196
2014	251	9,251	56,353		65,855
2015	199	7,377	57,920		65,297

정부 지원실적

지원사업명	지원연도	지원부서	지원금액(백만원)	비고
코어빌리지사업	2009	완주군	100	
향토산업마을사업	2010	전라북도	300	
농어촌활성화사업	2011~2012	농식품부	3.7	
향토산업마을사업(추가)	2015	전라북도	50	



동상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당진 백석올미 마을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할매들의 반란'
천덕꾸러기 매실을 효자상품 매실한과로 키워낸
할매들의 유쾌한 반란으로 백석올미 마을엔
날마다 행복을 버무리는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올미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 위치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매실로 246
👥 인구수	210명
🏠 가구수	103가구
🌿 마을 자원	쌀, 찹쌀, 콩, 깨, 매실, 블루베리, 사과 등
🌟 행복마을 성공비법	- 백석올미=하얀 돌 + 전통한과 제조방법=ALL ME - 부녀회에서 시작한 올미, 이제는 ALL ME - 우리 마을 오랜 꿈은 올미 힐링타운을 짓는 것



백석올미=하얀 돌 + 전통한과 제조방법=ALL ME

백석올미는 예로부터 하얀돌이 많아하여 붙여진 지명 백석리에, 고구려 개국공신 복지검 장군의 모후로부터 전승되어 온 전통한과 제조방법을 계승하여 최고의 맛이라는 올미가 결합되어 탄생한 마을로 당진 시내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하루 3번 버스 운행을 하는 곳입니다. 평균연령 75세 어르신들로 고령화된 마을에 여느 마을처럼 젊은 노동력은 부족하고, 소농인들 연평균 소득이 500만원선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농사만 짓던 아낙들이 마을을 위해 도전을 한 것인데요, 그 아이템은 바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천덕꾸러기였던 10만 그루의 매실나무의 활용이었습니다. 백석올미 마을 부녀회 영농조합은 마을이장, 노인회장, 리더를 중심으로 협력하여 총 33명의 부녀회원이 200만원씩을 출자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1년동안 열심히 회의를 하면서 결정한 일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한기 석달간 급식봉사, 노래교실 동아리 운영, 건강 체조교실 운영, 서각 동아리 운영(작가 5명 등단), 서예동아리운영 등 대학생보다 더 바쁘게 생활하며 같이 웃고 같이 밥 먹고 부딪히며 갈등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부녀회에서 시작한 올미, 이제는 ALL ME



부녀회원 33명이 시작한 영농조합법인은 이제는 87세 할머니부터 37세 새댁까지 온 마을이 함께하는 영농조합이 되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한과 만들기 체험으로 시작하여, 손주사랑 한과체험을 전통 문화의 보존가치로 계승,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집중하다 보니 현재 체험소득이 전체소득의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은 매실 한과체험, 올미 약과체험, 올미 강정체험, 전통엮치기 체험, 3색 송편빚기, 전래놀이체험, 전통공예체험 등 30여가지로 확대되었고,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인 농촌체험학습장으로 지정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마을의 모든 의사결정은 총회, 이사회, 임원회, 마을회 등 회의를 통하여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구조로 확립하였고, 마을기업은 많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로 나눠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하였으며 이장, 위원장, 법인대표, 공장장, 영업총괄, 체험총괄 등 조직장들도 서로 돕도록하여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당진 올미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은 30여가지로 성장하였고,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인 농촌체험학습장으로 지정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마을 오랜 꿈은 올미 힐링타운을 짓는 것

백석올미 마을의 차별성이 무엇이나 물으신다면,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마을 것이 떨어지면 생산을 하지 않음으로써 품질의 균질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6억 매출 중 4억1천만원이 원재료비와 인건비 등으로 다시 마을의 수익으로 돌아오고 2013년 1명이었던 정규직 직원은 2015년 기준 20명으로 늘었으며 경제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할매들의 주머니 걱정을 정규직으로 출근하며 돈 버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마을로 바꾼 점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당초 사업을 시작하게 된 목적이 마을 주민의 생활안정 및 행복한 삶 영위에 둔 도전이었기에 서로 힘을 합쳐 헤쳐 나왔고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더욱 더 큰 꿈인 올미힐링타운을 지어 마을 주민 모두가 행복한 두 팔을 벌려 열려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큰 돈은 아니어도 행복할 정도는 내손으로 버니, 참말 행복한 것 아니 것 슈?”



당진 백석올미 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체험소득마을을 대표해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백석올미 마을은 매출의 무한 상승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농업 농촌의 보존가치와 우리 전통 먹거리의 우수성을 후대에 계승할 것이며, 사회 취약계층 삶의 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힘쓰고, 백석올미 마을에 내 자손들이 귀농귀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백석올미마을 대표 김금순

- 성과조사 -

마을사업성과

연도		2013	2014	2015	2016(예정)	2017계획
구분						
방문객 수(명)		899	1,800	3,000	6,000	10,000
소득 (만원)	수입	23,900	36,300	61,000	70,000	80,000
	지출	21,200	26,700	47,500	55,000	60,000
	순수익	2,700	9,300	13,500	15,000	20,000
귀농귀촌자 수 (가구/명)		2	4	6	4	4
일자리 창출 수(명)		1	5	22	20	20

정부 지원실적

지원사업명	지원연도	지원부서	지원금액(백만원)	비고
6차산업 소득사업 시범	2014	당진시	106	
꾸러미 직판장 사업	2016	당진시	80	



체험 고객 한 분 한 분을 VIP로 모시는

용인 하일마을

방문객의 기호와 방문 만족도를 고려하여 다른
체험마을보다 더욱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친환경적 · 친인간적 마을체험상품의 개발 및 운영!
마을 발전의 새로운 재도약의 계기가 된
용인시 하일마을

‘하일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 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하일로 117
👤 인구수	130명
🏠 가구수	48가구
🌿 마을 자원	반딧불이, 가재, 도롱뇽, 독수리, 하늘고기, 우렁이, 다슬기, 하일마을 메주, 하일마을 된장·청국장, 고추장, 이주국 장군저택 등
🏆 행복마을 성공비법	• 원칙과 합의를 통해 되찾은 마을의 활력 • 맞춤형 체험활동으로 경쟁력 확보 • 6차 산업 추진으로 마을 내 일자리 창출



원칙과 합의를 통해 되찾은 마을의 활력

학일마을은 용인시 동남단에 위치한 중산간 농촌마을입니다. 하드웨어 위주의 마을 개발사업으로 마을 사업이 침체에 빠져 있었으나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발전을 위해 고민하며 2010년 마을에 활기를 되찾기 위한 초석으로 2가지의 노력을 시도하였습니다. 첫째, 마을발전을 위하여 마을조직을 새롭게 통폐합하고, 마을운영규약을 새롭게 제정하였습니다. 마을주민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규약을 바탕으로 마을 경관개선을 위하여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내 축사를 철거하고 인근에 위치한 학일 저수지에서 낚시도 금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유기농법(우렁이농법)을 도입하여 주민이 함께 마을생태환경을 보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둘째, 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마을사업 운영을 위한 일정한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다른 마을과는 차별화된 학일마을을 찾는 방문객으로 하여금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일 1개의 단체수가 최소20명 이상으로 체험활동의 방문객 수를 제한하여 진행하도록 하여 다른 체험마을에서 느꼈을 너무 많은 방문객이 한꺼번에 몰려 마을 체험활동에 대한 질적 만족도가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였고 체험객으로 하여금 특별한 고객(VIP)이 된 것 같은 기분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도시민으로 하여금 농촌체험활동에 대한 상업적인 이미지를 개선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학일마을을 방문하는 단골 고객발생, 마을의 지속적인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늘어나는 체험객들로 인하여 이전에 비하여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마을 사업운영에 대한 마을전체의 관심이 높아져 학일 마을체험사업이 더욱 활력을 찾아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맞춤형 체험활동으로 경쟁력 확보



저희 마을은 2010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면서 학일 마을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방문·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일 저수지와 마을의 농경지를 활용한 농촌체험자원과 자연생태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저수지 주변에 생태탐방로 조성, 역사문화자원인 도요지 가마터 개발, 학일저수지 생태탐방로, 마을 주변의 고분을 활용한 풍수지리 학습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기획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은 다른 체험마을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방문객 단체별로 특화시킨 프로그램은 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을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으로 제공하여 역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방문객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체험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등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체험활동 운영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회 참여방문객수 제한으로 참여가 어려운 소규모 단체라 할지라도 인근의 소규모 단체들과 함께 일정을 조정하여 학일마을을 방문을 하고자 20명 이상의 단체를 구성할 만큼 그 인기가 대단해 졌습니다.

용인 학일마을은 소규모 단체라 할지라도 인근의 소규모 단체들과 함께 일정을 조정하여 학일마을을 방문을 하고자 20명 이상의 단체를 구성할 만큼 그 인기가 대단해 졌습니다.





6차 산업 추진으로 마을 내 일자리 창출

맞춤형 농촌체험활동, 1사 1촌 자매결연 등을 통해 활발한 도농교류를 시도하고 마을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직거래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마을생태환경 존을 위하여 시작한 친환경농법을 통해 얻어진 농산물인 유기농 쌀(우렁이농법), 배(저농약 인), 표고버섯(무농약), 콩을 학일마을 특산작목으로 발굴하고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농촌체험활동과 특산작물 직거래 판매 및 배나무 과실 수 분양의 1차산업, 특산작물인 콩의 전통장류 가공의 2차 산업, 학일마을기업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등 학일마을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험사업 운영 및 농작물의 가공에 필요한 인력은 마을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을수익 및 회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련 정보의 완전공개로 인하여 마을사업 운영과 마을리더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신뢰가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일마을은 이렇게 신뢰와 농촌의 따뜻한 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마을입니다.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마을발전을 위하여 합심하고 노력하고 고민하는 모습들이 모여서 학일마을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용인 학일 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앞으로 5년 후의 마을의 모습을 소개해주세요

A 우리 마을은 중장기적 마을발전을 위하여 마을발전계획 "마을비전 2020"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엔 마을주민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사시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마을에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마을회관과는 달리 마을주민 건강편의시설(보은센터), 회의실, 모임공간, 식당 및 농산물 공동가공작업장으로 기능이 모두 담겨 건물의 활용도를 극대화한 마을회관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마을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우리 마을만의 특화된 2차 상품을 개발하여 마을의 농외소득을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면 5년 후엔 아마도 마을주민과 자연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성과조사 -

마을사업성과

① 체험소득

연도	방문횟수(회)	방문객 수(명)	수익금액(천원)	비고
2009	60	1,220	21,253	
2010	96	2,561	33,334	
2011	128	4,622	66,936	
2012	171	6,968	98,896	
2013	182	10,028	183,208	
2014	109	9,526	125,028	
2015	189	11,503	153,025	[2014년 대비] 방문횟수 (80회 증가, 87%증가), 방문객 수 (1,977명 증가, 21%↑) 수익(27,996,147원 증가, 22% 증가)

정부 지원실적

지원사업명	지원연도	지원부서	지원금액(백만원)	비고
정보화마을	2005	한국토지공사	100	
농어촌체험휴양마을	2010	농업정책과		
지역특화사업	2012	농업기술센터	100	
색깔있는 마을	2012	농업정책과	5	
마을기업	2013	지역경제과	50	
클라인가르텐	2014	농업정책과	500	
걷는 길 사업	2016	농업기술센터	300	
농촌현장포럼	2016	농업정책과	7	



입선



청정자연과 예술, 그리고 공동체가 살아있는

영동 임계마을

농촌다움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황토 담장길에 주민의 정성이 함께하여 독특한 경관이 돋보이는 마을!
손주에게 용돈을 주는 할머니들이 사는 마을!
60%를 차지하는 귀농귀촌인에게 팔벌려 받아들이 열린 마을! 그리고 송이향 그윽한 황금을 따는 영동군 임계 마을

‘임계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 위치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임계길 303-20번지
👤 인구수	91명
🏠 가구수	54가구
🌿 마을 자원	귀농귀촌인들의 다양한 인적자원, 청정한 자연 속에서 자라나는 송이 / 능이버섯, 산채나물 및 각종 과일
🏆 행복마을 성공비법	• 뿌리 깊게 살아있는 공동체 • 청정 자연과 마을 예술가를 연계한 소득사업 • 마을 구성원의 가교가 된 마을 사업



뿌리 깊게 살아있는 공동체

마을 전체 가구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귀농·귀촌인들의 다양한 재능은 임계리의 큰 자원이자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농촌에 재능 있는 귀농·귀촌인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잘 되고, 잘 어우러져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임계마을이 원주민과 귀농인, 귀촌인 모두가 어우러져 잘사는 마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뿌리 깊게 살아있는 공동체 의식 덕분입니다

임계마을이 속해있는 임계리는 영동군 영동읍의 33개 행정리 중에서도 가장 공동체 의식이 두드러지는 마을로 꼽히는 마을입니다.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임계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참여하고 협동심이 좋아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마을이었으며, 그 시절을 겪은 어르신들이 지금까지도 먼저 나서서 마을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마을로 언제나 먼저 실천하시고 마을 일에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귀감이 되어 귀농·귀촌인들도 자연스럽게 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 참여하게 하게 되었고 마을 일에는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임계마을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또 임계마을의 황금부녀회의 높은 역량도 마을의 성공에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곳에 능력을 펼치기 시작하며 황금부녀회라는 별칭을 얻었으며, 금전적으로 크게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닌 것에도 모두가 순수한 마음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는 덕분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마을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청정 자연과 마을 예술가와의 소득사업



임계마을은 영동군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예전에는 차도 못 다녔을 정도로 깊숙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청정자연이 주는 버섯과 더불어 임계마을에는 예술가라는 보물자원이 있습니다. 예술가의 재능을 인정하고 마을 구성원으로서 마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칫 따로 움직일 수 있었던 마을 사업과 예술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자라고 있는 버섯과 화가, 공예가 등 마을에 거주하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버섯 채취, 버섯 요리 만들기, 나무 공예, 도자기 공예, 벽화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다 보니 접근이 다소 불편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체험 방문객이 임계마을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임계마을에서는 3년 째 버섯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마을 축제를 열고나면 오히려 적자였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올해는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등 홍보 효과에 소득까지 올리는 임계마을의 중요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마을이 거둔 이 작은 성공은 청정 자연과 마을 예술가라는 자원에 힘입어 시작한 마을사업이지만 이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꾸준히 새로운 것을 기획하고 또 웬만한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립심 덕분에 이렇게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영동 임계마을은
꾸준히 새로운 것을 기획하고
또 웬만한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립심 덕분에
이렇게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마을사업성과

① 소득 실적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예정)	2017계획
방문객 수(명)		5,200	6,500	6,000	8,000	9,000
소득 (만원)	수입	5,200	6,500	6,000	8,000	9,000
	지출	4,600	5,500	4,400	4,800	4,000
	순수익	600	1,000	1,600	3,200	5,000

정부 지원실적

지원사업명	지원연도	지원부서	지원금액(백만원)	비고
마을기업육성사업	2013	행정자치부	56	
청풍명월사업	2014	충청북도	10	
장수마을사업	2014~2016	농촌진흥청	105	
케이팜사업	2015	한국마케팅공사	50	
마을기업육성사업(2차)	2016	행정자치부	30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2016~2018	농림축산식품부	901	



마을 구성원의 가교가 된 마을 사업

우리 임계마을의 주민 80%가 마을 사업의 기반이 되는 영농조합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마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저축해서 묶어놓기 보다는 마을 사업에 재투자 하거나 혹은 마을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한 주민에게 인건비로 지급하는 등 대부분의 소득을 마을을 위해 지출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업이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금만을 모아두고 나머지 수익은 주민에게 돌아가다 보니 마을의 경제가 돌아가는 효과가 있고 또한 마을 주민들의 마을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입비에도 많은 주민들이 흔쾌히 영농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마을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을 사업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게 되고 소통하게 되니, 마을을 떠나는 주민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임계마을의 마을사업은 마을 구성원의 가교 역할을 하며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영동 임계 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임계마을 체험프로그램에 특별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A 우리 임계마을에서는 사계절 내내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통 체험 프로그램이 여름과 가을에 집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여름에는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겨울에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사계절 내내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 우리 임계마을 체험프로그램의 장점입니다. 또한 비슷비슷한 체험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버섯, 황토를 활용한 건강 체험 프로그램과 나무, 도자기를 활용한 공예 프로그램 등 다른 마을에서 쉽게 접하지 못했던, 남녀노소 모두를 아우르는 체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체 방문객이 아닌 소규모 방문객도 체험을 원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우리 마을의 특별한 점입니다

임계마을 사무장 김성미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경쟁분야

문화복지

충남 태안군 만대마을 **금상** 40

경남 밀양시 신안운심 문화마을 **은상** 46

경북 칠곡군 어로 1리 마을 **동상** 52

충북 충주시 수회마을 **입선** 58

부산광역시 대흥마을 **입선** 64



금상

역경 속에서도 문화로 꽃 피운

태안 만대 마을

2007년 세계를 놀라게 한 유류유출사고의 피해지역으로 생태복원을 위한 방재 작업길이 생태 탐방로가 되고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 시작한 문화프로그램, 우리의 자연과 삶 속에서 예술을 찾던 예술인의 귀향으로 시작된 나오리 문화제, 주민들의 삶이 가락이 되고 가사가 되어 만들어 가는 만대 강강술래, 지역 문화 공동체로서 삶 속에서 문화를 만들고 있는 만대마을

‘만대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 위치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원리로 2650-2
👤 인구수	299명(남168, 여131)
🏠 가구수	170가구
🌿 마을 자원	태양초 고추, 벼, 한우, 축제식 양식, 감장굴, 호박고구마, 녹차, 체험시설 등
🏆 행복마을 성공비법	• 유류 유출사고와 끝없는 상실감 • 귀향인으로부터 시작된 마을의 변화 • 주민 스스로 만든 창작작품, '만대강강술래'





유류 유출사고와 끝없는 상실감

태안군에서도 외지기로도 유명하고 경치 좋기로도 유명한 마을이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로, 자연 무서운 줄 알고 욕심 같은 거 없이 살던 마을이었죠. 부족한 게 딱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가까이 할 수 없는 문화 시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문화시설은 차타고 왕복 두시간이 소요되어야 그나마 가능했기 때문에, 바쁜 나날을 전쟁처럼 살아가던 만대마을 주민들에게는 문화와 예술은 어디 돈 많고 시간 많은 도시민들의 이야기 정도로 이해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7일 오전 7시경에 일어난 태안반도 해상에서 발생한 원유 1만 2547kl 유출사고는 우리 만대마을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태안반도의 슬픔을 함께 지우기 위해 만대마을을 찾았습니다. 물론 마을을 떠나 살던 출향민들도 뉴스를 보고 단결음에 귀향을 결심하여 만대마을의 회복을 위해 힘을 합쳤답니다.

여러 명의 귀향인들은 시름에 빠져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름은 다 닦았다고는 하나, 바다가 삶의 터전이던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끝없는 상실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별다른 의미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회관을 찾는 주민들도 하나 둘 줄어갔습니다.



귀향인으로부터 시작된 마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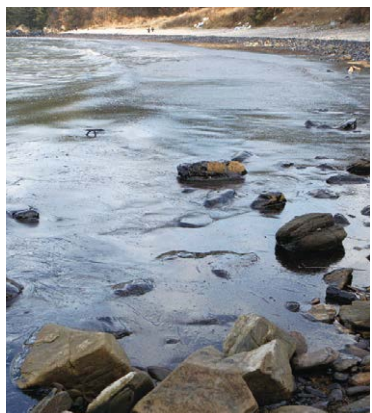


마을 앞바다 기름유출사고 소식을 듣고 내려온 귀향인들은 굳게만 닫혀있던 마을주민들의 마음과 깊이 파인 주름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귀향인 차운천 씨는 절망에 빠진 고향을 찾아 방제를 시작하고, 기름방제작업을 위한 작업로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이었다는 이유로 내려와 혼자 매일 산에 올라가 끔끔 대는 모습은 마을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같이 해보자는 반응들을 동시에 만들어 냈습니다. 절망의 공간에서 맞이한 고향의 아름다움을 느낀 차운천 씨는 마을의 멋스러운 풍경을 외부에 소개 하게 됩니다. 그러자 절망의 길이 연간 8만 명이 찾는 탐방로로 변화되고 아픔은 함께 나누어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 작업로는 훗날 태안의 명품 등산로 '솔향기길'의 제1코스가 되었습니다.

한편 마을에 2004년 귀향한 양승호 씨는 국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도예가였습니다. 마을이 그리워 마을 한 켠에 자리를 잡고, 아티스트 그룹 나오리를 만들어 문화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냉대와 무관심으로 초기에는 마을의 문화활동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이후에 주민과 함께하는 공연도 유치하는 등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느리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주민들, 단조로운 삶 속에서 벗어나 웃음과 함께하는 문화공동체로 바뀌어 갔습니다. 2016년 현재 제9회 생태예술제 '자연, 인간, 조화'라는 주제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안 만대마을은
'자연, 인간, 조화'라는
주제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만든 창작작품, '만대강강술래'

만대마을 만의 만대강강술래. 만대강강술래는 주민들의 삶을 이야기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검은 재앙'이라는 작품에 한 장면으로 구성되기도 하였다. 검은 재앙은 2007년 태안 기름 유출사고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다시 태어나는 바다. 그 바다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땅끝마을이 주요 이야깃거리입니다. 만대마을 주민들이 겪었던 아픔과 극복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대강강술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대강강술래

돌아돌아 갯변돌아 바지락이 동글동글
갯빨속에 숨어있네 호미곡곡 캐어 내어
바구니에 소복담아 가마속에 보글보글
시어머니 봉양하세 하하호호 웃음소리
가족건강 넘쳐나네 강강술래 강강술래
만대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술향기길 걸어보세 행복한길 걸어보세
방방곡곡 모여들어 용난굴도 둘러보고
당봉에서 일출보고 여섬에서 일몰보세
삼형제 바위 둘러보고 우리함께 즐겨보세
강강술래 강강술래
생략



태안 만대 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앞으로 마을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그동안 우리주민들이 잊고 살았던 것을 찾아가는 사업들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 복지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여유가 없어 잊고 살았던 많은 것이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활동들로 하나하나 되살아나면서 행복한 삶이라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모르던 어르신들이 문예교실로 머느리에게 손자에게 편지를 쓰고 생전 그려보지 못한 그림을 그려 80년 만에 찾은 재능으로 kbs인간극장에 '어머니의 스케치북'으로 소개되는 등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주민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문화사업을 확대하며 주민들이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각종 동호회 활동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만대마을 전 이장 김영희

- 성과조사 -

마을사업성과

가구 및 인원수 : 130가구299명

마을 공동체 현황 : 마을추진위원회 15명, 부녀회65명, 노인회73명, 잠장굴 작목반40명, 영농·영
어조합 법인105명, 만대 어촌계66명, 만대 선주회47명, 만대굴 작목반16명

① 공동체 활동 실적

구분	동아리	문예교실	부녀회	차(Tea)교실	문화포퍼먼스	도예
회원 수(명)		20	65	15	25	25
활동 실적 (회)	2015	30	15	10	10	40
	2016	30	17	10	30	40
	2017	30	15	10	10	40

② 문화활동 실적

- 나오리 생태예술축제 개최 : 10회(2001년부터)
- 술향기 바닷바람 한마당 다원 창작예술참가 : 2014년 ~ 2015년
- 도예프로그램 운영 : 2012년 ~ 2016년
- 너나들이 교실 : 2011년, 2014년(년30회)
- 전통 우리나라 장례 문화 복원 : 2015년
- 만대강강술래 창작 : 2014년 ~ 현재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2013년 ~ 현재
- 만대마을 공부방운영 : 2015년 ~ 현재
- 술향기길 축제 개최 : 2015년 ~ 현재
- 내2리 만대향토지 제작
- 만대마을 전화번호부 제작

③ 귀농귀촌자 수 : 8가구 16

④ 그 외 기타 활동들:Naori France Eco-Art"개최(개최 장소: France lyon), 2001년부터 매년 행사 개최

정부 지원실적

지원사업명	지원연도	지원부서	지원금액(백만원)	비고
녹색체험마을	2015	농림축산식품부	300	
창조적마을만들기(문화분야)	2016~2018	농림축산식품부	500	
마을현장포럼	2013	태안군	10	



은상

문화콘텐츠 개발로 스토리가 있는

밀양 신안운심 문화마을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활기찬 마을을 만들고 있으며 운심검무를 보존·계승 발전 시킴으로써 남녀노소 마을주민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마을로 성장하고 있는 신안 운심 문화마을

‘신안운심문화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 위치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안인2길 36-57(안인리 신안마을)
👤 인구수	211명
🏠 가구수	111가구
🌳 마을 자원	조선 검무의 창시자 운심의 묘와 사랑스토리, 운심의 검무, 영남대로 옛길, 골뱅이 바위, 마을벽화, 상동갯잎, 상동고추 등
🏆 행복마을 성공비법	• 전통문화 예술의 보존과 계승을 잇는 문화마을로의 탄생 • 조선최초 '운심 검무'의 체계적인 콘텐츠 개발 • 대표적인 농촌문화 관광마을로 발전





전통문화 예술의 보존과 계승을 잇는 문화마을로의 탄생

신안마을은 조선 영조 때(18C) 공연예술문화의 최고 절정기를 이룬 시절, 조선검무의 효시인 운심의 고향이자 그녀의 묘가 있는 곳으로 주민들이 지역의 문화유산인 '운심의 밀양검무'와 윤순과의 사랑 스토리를 발굴하여 해마다 운심 검무축제를 개최하고, 영남대로 옛길 등 전통문화자원을 발굴, 재생하고 있는 문화 마을입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독거 노년층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마을이 철도변에 위치해, 소음과 교통도 불편하여 빈집이 증가하는 등 점점 활기를 잃어가는 마을이었습니다. 또한 새롭게 유입되는 귀촌 인구로 인해 마을의 단합은 깨지고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마을 발전을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주민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고, 현장포럼을 통해 마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면서 마을 자원을 찾고 활용방안과 구체적 과제를 발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최초 '운심 검무'의 체계적인 콘텐츠 개발



주변의 밀양 아리랑 콘텐츠 사업단과 밀양 문화관광 연구소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서 운심의 스토리텔링, 검무의 개발과 공연,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였습니다. 콘텐츠 사업단은 밀양시와 상동면사무소와의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안 운심문화 마을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10월경 '운심 검무축제'를 개최하여 약3,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마을의 농산물(갯잎, 고추, 반시)을 홍보·판매하고 전국의 검무 공연팀을 초청하여 전국단위의 검무공연, 마을벽화와 메밀꽃 군락지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는 시골 마을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마을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비전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강구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은 이 작은 성과를 발판으로 앞으로도 마을의 발전방향과 목표를 세워 주민 스스로 맡은 바 역할을 분배하고, 협동해서 마을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같은 발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업에 모든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한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밀양 신안운심문화마을은 '자연, 인간, 조화'라는 주제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농촌문화 관광마을로 발전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마을의 자랑거리인 검무는 지역주민들이 일과 후 운심 검무의 전승과 보전을 위해서 스스로 모여 연습을 하고, 운심 검무축제 때 주민들이 직접 공연을 하는 등 전통계승과 발전을 위해 숭선수범을 하고 있으며 마을의 새로운 문화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불어 방문객을 위해 마을 해설가를 양성하고, 마을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아리랑을 접목한 '아리랑동동' 건강 체조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염색,부채만들기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여 공동체를 복원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마을주민이 한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축제와 문화·복지 프로그램 덕분에 마을 분위기가 활기차게 변모하고 있으며 침체되어 있던 마을을 살리고 주민들의 결속력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마을의 변화는 방문객들에게는 색다른 체험관광 인프라를 제공하여 마을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즉, 마을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방문객 증가를 통해 마을 활성화', '마을 특산물 소비증대로 농가소득 증대', '농가 소득 및 고용증대로 마을경제 활성화', '대표적인 농촌문화관광 마을'로 육성한다는 단계별 비전을 가지고 마을 주민이 행복한 마을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밀양 신안운심문화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문화공동체마을로서 앞으로 마을이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A 5월경 장미 꽃길과 자전거를 도입한 소규모 체험형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며 10월경 운심의 일편단심 스토리를 활용한 신안마을 운심검무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운심검무 축제는 운심의 넋을 기리는 제향식을 시작으로 전국 검무 공연, 농·특산물 판매, 주민들이 직접 천연염색으로 만든 스카프·손수건 판매, 각종 체험부스운영 등 주민 주도형 축제로 마을 주민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을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 문화 전수관과 문화 광장을 조성하여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활기찬 마을 만들기 및 운심검무를 보존·계승 발전 시킴으로써 남녀노소 마을주민 누구나 행복해 질 수 있는 마을로 성장해 가겠습니다.

신안행복마을 추진위원장 박재준

마을사업성과

① 체험소득 (단감따기 체험)

구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획
소득 (만원)	방문객 수(명)				40	200
	수입				40	200
	지출				15	50
	순수익				25	150

② 공동체 활동 실적

구분	동아리	공연(운심)	주말극장	풍물(청소년)	마을축제 개최 (추진회)	천연염색
활동 실적 (회)	회원 수(명)	20	25	20	40	20
	2015	3회	-	-	1	20
	2016	6회	2	20	1	30
	2017	10회	12	40	2	30

③ 경관 활동 실적

구분	내용	마을벽화	정비	설치	보수	기타
활동 실적 (회)	2015	200m 조성	운심묘 길	조형물 3식	마을벽	
	2016	100m 조성	마을주변	조형물 3식	마을벽	
	2017계획	50m 조성	마을주변	조형물 5식	마을입구	

④ 지역민 역량강화 실적

구분	내용	마을회의	강의(교육)	선지지 견학	참여	기타
활동 실적 (회)	2015	10	10	2	2회	
	2016	20	10	2	4회	
	2017계획	20	10	4	4회	

정부 지원실적

지원사업명	지원연도	지원부서	지원금액(백만원)	비고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	2015	문화체육관광부	100	시비 50%
행복마을콘테스트 은상	2016	농림축산식품부	20	
운심마을공연예술축제	2016	문화체육관광부	12	
창조적마을만들기(문화복지분야)	2017	농림축산식품부	500	
마을공방	2017	행정안전자치부	200	시비 50%



동상

‘인문학 마을 만들기’에 성공한

칠곡 어로 1리마을

인생을 연기하는 평균연령 76세의 보람할매
연극단을 구심점으로 단합하여 인문학 마을로
거듭 발전해나가고 있는 칠곡 어로1리 마을

‘어로 1리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 위치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어로2길 54
👤 인구수	247명
🏠 가구수	105가구
👥 마을 자원	마을회관, 보람할매연극단, 어로연극제, 다양한 인적자원 등
🏆 행복마을 성공비법	• 삶이 예술이 되는 마을, 어로리 • 마을이 하나 되는 문화행사 「어로연극제」 • 자발적인 주민 참여형 인문학 마을 만들기





삶이 예술이 되는 마을, 어로리

우리 마을이 다른 마을과 차별화 된 점이 있다면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도 읽지 못하던 평균 연령 76세 할매들의 삶을 소재로 시작한 '보람할매 연극단'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 및 기초적인 산수교육을 가르쳐주는 교육 프로그램인 '성인문해교육'을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람할매 연극단은 2013년 「휠철 간다」, 2014년 「흥부네 박터졌네」, 2015년 「흥부네 경사났네」 등 모두 3편을 발표하였고 지역행사나 전국 각종 축제에 초청되어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4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연극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2015년도에는 실버문화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전국적인 스타할매 연극단이 되었고 우리 연극단은 단순히 공연에만 그치지 않고 공연수익금으로 지역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등 지역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경상북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타지역 5곳에서 문화예술 연극공연을 했으며 공연을 관람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람할매 연극단의 단원들도 연극을 통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에서 공연기회를 몸소 체험함으로써 삶의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마을이 하나 되는 문화행사 「어로연극제」



어로리 마을은 2013년부터 마을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에 사람이 다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는 많지 않지만 우리마을은 보람할매 연극단을 구심점으로 마을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화향유의 기회가 없었던 주민들은 마을회관에서 펼쳐진 연극에 빠져들었고 내 인생 같기도 한 연극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마을 주민들이 좋아하다 보니 입소문이 나면서 인근 공장직원들과 아파트 주민들도 연극관람을 위해 마을축제에 참여하는 수가 늘어났고 점점 마을 주민들과 화합하고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4년째인 연극제는 경북지역에만 국한 했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버연극단을 초청하면서, 이제는 「어로연극제」가 단순 마을 축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참여하는 철곡 대표 축제이자 경북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철곡 어로리마을은 보람할매 연극단을 구심점으로 마을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문화를 즐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주민 참여형 인문학 마을 만들기

철곡군은 2013년부터 인문학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인문학마을이란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즐겁게 창조하는 마을이며, 2013년 9개 마을을 시작으로 2016년 24개의 인문학마을이 조성되었습니다.

인문학마을은 연초에 열린 생각밥상을 통하여 1년동안 마을에 살아보는 '1년살이'를 마을주민과 함께 고민해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전국대학생 인문학활동으로 전국의 대학생들이 일주일동안 마을에 머물면서 마을 주민들과 인문학을 매개로 교류하였고, 인문학공정 여행은 어로리를 찾은 주민들에게 숨은 어로리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인문학마을 3년 만에 어로리는 예술 마을이 되었고 도시인들이 인문학 마을살이를 하면서 마을은 계속해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예술이 되어가는 어로리마을 안에서 주민들은 그 변화과정을 재미있게 즐기고 참여하며 예술마을로서의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철곡 어로리 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앞으로의 5년 후 마을의 모습을 그려주세요

A 5년 후 어로리 마을은 지금의 모습에서 외적이나, 내적으로 좀 더 발전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적으로는 농산물 판매사업이 완료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마을 공연장이 완료되어 마을 축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술마을을 찾는 예술가들을 위해 더 많은 레지던스 공간이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로리마을 이장 이영석

- 성과조사 -

마을사업성과

① 체험소득(인문학마을 체험, 보람할매연극단 공연, 마을축제)

구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획
소득 (만원)	방문객 수(명)	100	400	700	800	1,000
	수입	300	800	1,200	1,400	1,500
	지출	300	700	800	900	800
	순수익	0	100	400	500	700

② 공동체 활동 실적

구분	동아리	늘배움학교	보람할매연극단	풍물	염색 및 한지공예반
활동 실적 (회)	회원 수(명)	15	13	20	20
	2015	14	13	18	20
	2016	15	13	20	20
	2017계획	17	15	20	25

③ 문화행사 실적

행사명	기간	참가인원(명)	비고
인문학마을활동	년중	200	
어로연극제	매년 10월중	500	실버연극제
경호천축제	매년 4~5월중	800	

정부 지원실적

지원사업명	지원연도	지원부서	지원금액(백만원)	비고
창조적마을만들기 (마을종합 분야)	2016~2020	농림축산식품부	1,000	



입선

폐교 위기를 극복, 문화활동마을로 거듭난

충주 수회마을

아이들에게 '고향을 만들어주자'는 부모의 마음이 모여 새로운 마을 만들기가 시작되었고 '아이들'이라는 공통 관심사에서 시작된 공동체 문화활동이 부모 세대의 상처까지 치유 해준 수회 마을

'수회마을'을 소개합니다

마을 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104
인구수	304명
가구수	133가구
마을 자원	중앙경찰학교, 석문동천, 수안보양조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첩푸산, 수회초등학교
행복마을 성공비법	• 폐교위기에 있던 학교를 살려 활력을 되찾다 •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 • 아이들의 행복이 우리 마을의 행복





폐교위기에 있던 학교를 살려 활력을 되찾다

1998년, 수회초등학교는 폐교 위기를 맞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수회초등학교의 폐교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수회마을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꾸려 수회초등학교 살리기 운동을 시작하였고 도시를 돌며 수회초등학교로 전학올것을 꾸준히 설득하는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홍보활동과 함께 수회초등학교는 다양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게 되었고 수회초등학교동문회의 시내셔틀버스 운영까지 보태졌습니다. 주민들의 마을과 학교에 대한 애정과 연극 활동, 인형놀이, 판소리공연, 수공예 작품 만들기 등 다양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를 오고 가는 교통편까지 편리해지자 수회초등학교는 도시에서 줄서서 입학하는 학교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폐교위기를 극복한 수회초등학교의 유명세로 도시에서 입학하는 학생들도 많아졌고, 일단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수회마을에 이주해 오는 귀촌 가구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따로 놀 것 같은 원주민과 귀촌인들의 공통 관심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들의 교육과 행복”이었습니다. 공통 관심사가 있어 교류도 활발해졌고 자주 만나 소통하다 보니 마을신문을 발행하기로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기자단’을 결성하여 취재를 하고 아이들이 직접 신문을 배달하자 자연스럽게 세대 간 소통도 원활해 졌고 이웃과의 관심도 높아져 궁극적으로는 마을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며 마을이 하나가 되어 활력을 되찾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



도시에서 이주한 귀촌 가구 중 연극, 미술 등 재능을 가진 젊은 주민들의 아낌없는 재능기부로 수회마을은 다양한 문화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그림자연극, 힐링 시와 그림을 싣고 가는 연극, 도담도담 아이들이 만드는 잔치 등 다양한 연극 활동으로 충주에서 매년 개최되는 세계무술축제에도 초청받아 연극 무대에 다 함께 올랐습니다. 그러나 연극활동이 장점은 많았지만 장소와 시간이 맞지 않으면 함께 하지 못하는 주민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생각해 낸 것이 미술활동이었습니다. 미술을 통한 작품 활동은 모여서 다함께 하기도 하고, 시간이 부족하면 집에 가져가서 하기도 하는 등 직장이나 다른 여러가지 사정으로 한 데 모이지 못하는 주민들까지 묶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문화체험센터 건립 후에는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유명한 판소리 공연 등을 초청하여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세대와 마을을 아우르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충주 수회마을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세대와 마을을
아우르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이 우리 마을의 행복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사라진 ‘마을’, 그리고 농촌에서 사라져가는 ‘아이들’. 과거 수회마을은 이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고향을 만들어주자’는 부모의 마음이 모여 마을 만들기가 시작되었고 ‘아이들’이라는 공통 관심사에서 시작된 공동체 활동이 오히려 부모 세대가 도시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나 마음의 상처를 마을에서 치유 받게 되었습니다. 어른들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하니, 온 마을의 행복까지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마을 어른들을 아우를 수 있는 문화 활동까지 보태지니 문화 활동으로 온 마을이 행복해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문화·복지를 추구하는 마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회마을은 지금까지 꾸준히 이런 활동들을 펼쳐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충주 수회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문화 활동을 펼치기 전과 후 달라진 수회마을 모습이 있나요?

A 일단 어른들이 우리 마을이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게 된 점입니다. 그리고 마을의 젊은 부모들의 공동체 의식이 높아져 엄마들 생일파티도 함께하고, 각자하던 김장을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이 많아져 더 끈끈한 우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 학교 내에서 아이들끼리 일어나는 갈등이나 학부모 간의 갈등도 마을에서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지내기 때문에 아이들 간의 싸움에서 자칫 오해를 하고 틀어져 버릴 수 있는 일도 비교적 쉽게 해결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수회마을 허윤희

- 성과조사 -

마을사업성과

① 공동체 활동 실적

구분	동아리	그림동아리	연극동아리	명패, 우체동 공방운영	작은도서관 개관운영
회원 수(명)		8	10	8	8
활동 실적(회)	2015	20	30	12	5
	2016	16	30	12	5
	2017계획	20	10	12	5

정부 지원실적

지원사업명	지원연도	지원부서	지원금액(백만원)	비고
문화이모작 지원사업	20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5	
충북도기획지원사업	2013	충북문화재단	15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2013	충북문화재단	10	
마을만들기사업	2013	충주시	18	
문화활동지원사업	2013	충북문화재단	10	
마을만들기사업	2014	충주시	10	
문화플랫폼사업	2014~2016	충북문화재단	10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2014~2015	충청북도	300	
마을만들기사업	2015	충주시	8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2015	충북문화재단	10	
문화순회사업	2015	문화체육관광부	10	



입선

다시 찾고 싶고, 걷고 싶은 아름다운

부산 대흥마을

자연이 준 풍요로운 들녘과 풍부한 물로 상징되는 대흥마을은 주민의 공동체 활동과 소비자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풍요로운 들녘 열린 마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노래와 춤을 통해 마을 주민이 즐거운 마을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흥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 위치	부산시 강서구 봉죽길 235번길 221(봉림동 대흥마을)
👤 인구수	152명
🏠 가구수	79가구
🌿 마을 자원	쌀, 어울터(마을공동작업장), 마을회관(문화·복지프로그램 행사장), 도농교류센터(모내기, 벼수확체험, 떡메체험, 옥수수 수확체험 등)
🌟 행복마을 성공비법	• 대흥농촌장수 대학을 평생학습장으로 • 다양한 농촌체험의 요지로 탈바꿈 • 소비자와 함께하는 풍요로운 마을 만들기





대흥농촌장수 대학을 평생학습장으로

대흥 마을을 들어섰을 때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들녘은 대흥마을 자랑거리이며 마을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외곽지역인 마을의 위치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들녘이 주는 자연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서 마을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올레길처럼 우리 마을도 걷기 좋은 마을로 가꾼다면 외곽지역이라는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을 공동체에서 알게 되었고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는데 동참하게 되면서 대흥마을은 자연도 아름답지만 문화해택도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 즐기는 그런 마을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는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취미생활과 문화체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마을주민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특히 대흥농촌장수 대학을 운영하여 평생학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은 주민들의 단결과 열린 마음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평생학습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마을 주민 스스로 배우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노래교실이나 생활체조, 건강증진 프로그램, 천연염색, 하모니카, 국화교실, 실버 요리교실, 가정원예, 천연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은 트렌드를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의 참여도 높고 그 동안 띄엄띄엄 떨어져 있던 주민들이 문화·복지 교실을 통해 자주 만나며 가족 공동체처럼 정을 나누는 활기찬 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농촌체험의 요지로 탈바꿈



부산 외곽지역에 위치해 문화 사각지대였던 우리 마을의 지리적인 단점이 인근 도시민들에게는 멀리 가지 않아도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농촌문화체험의 최적지로 대흥마을이 부상하였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 가락동사무소와 강서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가락지소, 가락농협, 제이팜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 위원단을 구성해 협업하며 마을의 비전을 설계하였고 다채로운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운영, 도시민들이 다가 올 수 있는 여러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산지역 제1의 서점인 '영광도서'와 1사1촌 협약을 체결하여 문화가 있는 대흥마을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의 비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외지 도시인을 초청 '떡국 시식회, 농촌 들밥먹기 체험, 풍년기원제' 등을 함께 개최하여 도시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도농 교류를 확대해서 마을의 특징을 잘 홍보하고 마을 수익사업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부산 대흥마을은
도농 교류를 확대해서
마을의 특징을 잘 홍보하고
마을 수익사업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풍요로운 마을 만들기

대흥마을은 풍요로운 들녘과 풍부한 물이 상징인 곳입니다. 우리마을은 주민공동체 활동과 소비자와의 교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풍요로운 들녘 열린 대흥마을'을 이라는 비전을 정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이는 대흥마을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을 다녀간 사람들이 다시'찾고 싶고, 걷고 싶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마을회관 앞을 정비하고 조만간 지류에 산책길을 조성하여 주민과 외지 도시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문화와 마을의 문화를 융화시켜 마을 주민이 화합하여 재미있는 체험 행사와 잔치와 같은 마을문화를 만들고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고 살리는 다양한 사회활동과 학습활동을 통해 '다채로운 취미가 있는 마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밖에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매개로 소비자와의 교류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주민에게는 소득을 높이는 '소비자와 함께 하는 마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부산 대흥 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문화공동체마을로서 앞으로 마을이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A 마을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동아리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래와 요리, 걷기동아리 등 재능기부를 통한 동아리 결성은 지원사업이 끝난 후에도 문화가 있는 마을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산 제1의 서점인 '영광도서'와의 1사1촌 결연을 더욱 활성화 시켜 마을 강연회수를 높여 문화혜택을 강화하고, 마을주민과 농촌노인 돌봄 프로그램인 '老-케어'로 마을의 어르신들을 좀 더 세세하게 돌봐 드릴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활동은 앞으로도 마을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성과조사 -

마을사업성과

① 공동체 활동 실적

구분	동아리	생활체조 프로그램	건강증진 교실	마을주민 교양강좌	가정원예 프로그램	국화교실
참여인원(명)		28 / 회	20 / 회	167	38 / 회	36 / 회
활동 실적 (회)	2015	20	2	3	1	5개월
	2016	18	1	1	1	
	2017계획					

구분	동아리	하모니카 / 노래 교실	실버요리 교실	천연비누 만들기	천연염색 / 비누 만들기	마을환경 정비
참여인원(명)		38 / 회	132	74	36	40 / 회
활동 실적 (회)	2015	5개월	4	1	1	5
	2016	4	1	1		5
	2017계획					

정부 지원실적

지원사업명	지원연도	지원부서	지원금액(백만원)	비고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사업	2014~2016	농촌진흥청	135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경쟁분야

경관환경

경남 하동군 매계마을 금상 72

전북 진안군 두원마을 은상 78

제주 제주시 청수리마을 동상 84

강원 횡성군 어둔리마을 입선 90

전남 영암군 구림마을 입선 96



금상



자연의 미와 재능기부로 만든 아름다운 삶의 터전

하동 매계마을

지리산의 정기를 담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는 매계 마을은 '매화 꽃잎이 흐르는 계곡'이라 하여 '매계'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귀농인들과 마을주민들이 서로의 재능을 나누며 다양한 경관활동으로 아름다운 마을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매계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 위치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매계1길 24-3(매계리 매계마을)
👤 인구수	115명
🏠 가구수	65가구
🌳 마을 자원	송빈루, 마을방문자센터, 마을 소로길, 매실, 대봉감, 취나물
🌟 행복마을 성공비법	• 위기를 기회로 만든 마중물 사건 • 원주민의 경험과 귀촌귀농인의 재능기부로 마을발전 • 현장포럼·선진지역 견학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



위기를 기회로 만든 마중물 사건

느림의 미학 슬로시티로 인증받은 하동군 악양면에 소재한 매계마을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골마을입니다. 지금은 주민모두가 경관 우수마을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마을에 무관심하며 자발적 참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 이었습니다.

이런 매계마을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지난 2013년 마을 뒷산에 위치한 구자골 상수원을 지키면서부터입니다. 상수원주변 땅은 외지인소유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 이었습니다. 마을주민들은 상수원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반상회에 참여하면서 서로 의견을 내기 시작하였고, 땅 소유자와 마을과 장기 토지임차 합의를 도출하는 등 상수원 주변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하면서 위기를 극복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평소 마을 일에 무관심하던 주민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면서 '마을 일은 우리모두의 일'이라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마을에서는 주민공동체 회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교육, 선진지역 견학 등을 통한 주민 의식개선과 참여확대로 '지속 가능한 아름다운 매계를 만들어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기반을 다졌습니다.



원주민의 경험과 귀촌귀농인의 재능기부로 마을발전



매계마을에 귀농귀촌인구가 늘어나면서 처음에는 원주민과 귀촌귀농인 사이 가치관과 생활습관 등이 달라 사소한 것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고, 좋은 일보다는 불편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촌마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주민들과 원주민들은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불편한 일들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귀농인들은 원주민의 농업에 관한 오랜 노하우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농업의 기초를 갖추게 되는 결과를 보이게 되었고 도시 귀농인들의 이러한 발전은 자연스럽게 귀촌을 하는 사람들과의 징검다리역할을 하며 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리산의 아름다운 정기를 받은 마을답게 재능이 풍부한 사람들이 숨쉬며 발휘하며 발전해 나가는 매계 마을은 이제 목수, 조각가, 대나무공예가, 바느질 공방, 서예가 등의 다양한 재능이 마을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산책로 조성, 꽃동산 정비, 마을창고를 이용한 마을지도 제작, 캐리커처 문패 작성 등 다양한 경관활동을 실시하며 우수한 자연경관을 활용·보존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농산물을 활용한 '책살할매 마을식당'운영, 동네목수양성교육을 통한 민가 홈스테이 조성·운영(6개소), 마을 풍물단 및 산골마을 작은 음악회 개최로 도시민유입과 주민 소득증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러한 노력은 살기 좋고 아름다운 마을 이미지를 만들어냈으며, 현재는 귀농·귀촌인의 비율이 총 가구수의 30%로 귀농귀촌인이 오고 싶고, 와보면 살고 싶어하는 마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동 매계마을은
자연스럽게 귀촌을 하는
사람들과의
징검다리역할을 하며
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장포럼·선진지역 견학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

특히, 매계 마을에는 다양한 공동체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직마다 자발적인 모임이 활발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마을의 현안을 논의·해결하는 등 마을 발전 및 주민화합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2회 이상 경관우수 마을 등 선진지역 견학을 통해 자발적인 주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수원과 마을 숲 보존을 위하여 주민들의 공식적인 공동체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경관 개선을 위한 작은 노력들이 결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농산물 판매 소득을 증가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성과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교육과 선진지역 견학은 주민 의식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마을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동 매계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앞으로 마을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우리 마을은 연차적으로 마을이름의 유래인 '매화 꽃잎이 흐르는 계곡'이란 의미를 잘 살려 매화나무 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천혜의 자연자원을 유지·보존, 마을특성에 부합하는 수목식재, 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옛골 도랑 살리기와 마을 숲 가꾸기, 우물터 및 빨래터를 복원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관유지·보존을 위해 자연환경 해설사 육성과 수목학습교육을 병행하여 자발적인 마을 가꾸기를 추진할 것입니다. '매화꽃잎 흩날리는 매계마을 만들기'비전을 위해 깨끗한·아름다운·소통하는 산골마을 만들기를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인적 자원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경관 우수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사업성과

① 민박&객살할매식당 소득

구분	연도	2013	2014	2015	2016(예정)	비고
방문객 수(명)			227	450	600	
소득(만원)	수익액	-	250	830	1,000	

② 공동체 활동 실적

구분	동아리	부녀회	매계 작목반	매계 노인회	객살할매 식당	매계 풍물단	생활문화 공동체	산골마을 작은음악회
회원 수(명)		40	10	40	15	10	8	100
활동 실적 (회)	2015	12	12	10	4	12	12	1
	2016	12	12	10	4	12	12	1
	2017계획	12	12	10	4	12	12	1

③ 경관활동 실적

구분	구분	상수원 주변 환경정비	꽃동산, 꽃길조성	정자정비 및 가꾸기	마을이야기 지도벽화작업	캐리커처 문패 작업
참여자 수(명)		15	30	20	35	35
활동 실적 (회)	2015	5	5	2	10	10
	2016	6	5	6	5	5
	2017계획	6	5	6	-	-

정부 지원실적

지원사업명	지원연도	지원부서	지원금액(백만원)	비고
매계마을 안길정비	2016	하동군	10	
매계들 정비	2016	하동군	20	
농업인교육 기자재지원	2015	하동군	5	
다목적회관 환경개선	2014	하동군	7	



은상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

진안 두원마을

자연과 함께 생각하고, 지나친 개발보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꿈꾸고 실천하며
주민 모두가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두원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 위치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두원길 50
👤 인구수	95명
🏠 가구수	42가구
🌳 마을 자원	찬물내기, 성수산 산보길, 삼gut거리, 꽃탑(돌탑), 체육공원
🏆 행복마을 성공비법	• 고령화, 과소화 마을에서 희망이 살아있는 마을로 변신 • 단계별사업 추진으로 자연훼손과 오염이 없는 마을로 발전 •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고령화, 과소화 마을에서 희망이 살아있는 마을로 변신

과거 두원마을은 농촌마을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고령화, 초고령화, 과소화 마을이라는 수식어가 붙어도 될 만큼 어려웠습니다. 2006년 마을에는 13가구 25명의 주민, 65세 주민이 가장 막내일 정도로 고령화와 과소화의 위기가 동시에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 활력이 넘치는 마을로 살려고 재경향우회 중심으로 의도적인 귀향을 시작하였고, 2010년 10여명의 귀향귀농인이 모여면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계획적이고 자발적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 현재는 42가구, 95명으로 마을인구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기존의 원주민은 10가구, 마을이 연고인 귀향인은 18가구, 마을에 연고 없이 귀농·귀촌한 주민은 14가구로 과거 위기의 마을에서 이제는 미래가 기대되는 마을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의 마을 주민들은 스스로 마을의 경관 및 환경유지를 위하여 꾸준히 공동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제는 주민 스스로 마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두원마을 주민들은 마을 안에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더 살기 좋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스스로 희망을 찾고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단계별사업 추진으로 자연훼손과 오염이 없는 마을로 발전



해발 400m의 산골마을인 두원마을은 화려하지 않지만 있는 그대로의 소박한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두원마을은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을 통해 2012년 1단계 '그린빌리지' 사업에서 꽃길 조성 등 경관복원을 실시하여 진안군 '대상'을 수상하였고, 2013년 2단계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꽃밭만들기, 체육공원을 조성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3단계인 '옴마을 가꾸기'에서는 주민단합과 공동체 생활에 흥을 더하는 공동체 소득사업을 실시하였고, 진안군 백운면 '쓰레기 3NO운동'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두원마을의 청정한 환경, 소박하면서도 수려한 자연경관은 기본적인 생활습관에서부터 시작하였기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가꾸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두원마을은 쓰레기가 없는 마을입니다. 시골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폐비닐, 농자재들은 물론 재활용 쓰레기들도 모두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가 되어 도시의 아파트 단지보다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원마을은 악취가 없는 힐링마을입니다. 청정한 마을을 위하여 마을에는 축사가 전혀 없으며, 과거 마을의 몇몇 주민들이 작은 규모로 가축을 기르려고 하였으나 마을의 오염거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들이 설득하여 가축과 축사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두원마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마을의 청정한 자연환경은 결코 짧은 기간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자연을 아끼는 마음으로 환경을 보존하고, 경관을 가꾸어 나가며 꾸준히 마을 가꾸기를 실천해 왔다는 점입니다.

진안 두원마을의
청정한 환경,
소박하면서도 수려한
자연경관은
기본적인 생활습관에서부터
시작하였기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가꾸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을사업성과

① 경관환경

연도	내용
2010~2011	2007년부터 향우회에서 전입한 최근우, 김용태, 양연철, 서경철 등이 중심이 되어 자생적 마을가꾸기와 마을 정비를 시작.
2012(1단계)	꽃길 조성 등(진안군 대상 수상)
2013(2단계)	돌탑, 꽃탑, 미니정자, 체육공원 등
2014(3단계)	절임배추공장 완성
2015(4단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선정(농림축산식품부)

정부 지원실적

지원사업명	지원연도	지원부서	지원금액(백만원)	비고
그린빌리지	2012	진안군	250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2013	진안군	1,000	
으뜸마을가꾸기	2014	진안군	4,300	

마을주인이 주도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두원마을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소통으로 주민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2015년 5차례의 현장포럼을 거친 후 마을의 자원발굴과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정을 배우며 마을 경관조성 및 환경정화와 관련된 사항들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단합과 참여도를 끌어 올리고자 풍물패 활동 및 칠석잔치 등을 통해 전통문화를 재현하며 마을문화 형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 예산으로는 마을의 이모저모 소식을 함께 공유하고 기록하기 위해 '두원마을 소식지'를 발행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두원마을은 앞으로도 마을의 환경을 지키고, 아끼고, 가꾸기 위한 목표를 갖고 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상호협력으로 행복한 마을만들기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진안 두원 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이렇게 발전된 두원마을의 노하우는 무엇인가요?

A 마을만들기는 리더들만해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는데 정성을 다하고 회의를 자주 열어 의견을 결정하고, 의사결정이 안되면 의견이 다시 모아질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진행해가는 것이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결정이 안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행을 하면 생겨나는 것은 의심과 갈등입니다.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일에 정성을 들이고 있으며 의구심이 생길만한 것은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원마을 이장 김용태



깨끗한 자연 그대로의 힘을 아는

제주 청수리마을

제주 생태계의 보고인 꽃자왈 지역으로 다양한 야생식물과 야생화가 자생하고 있는 곳, 운문산 반딧불이의 최대 서식지인 청수리 마을은 청정한 환경을 지키고자 마을의 자원을 가꾸며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청수리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 인구수	623명
🏠 가구수	268가구
🌿 마을 자원	청수 공동목장, 반딧불이, 모진흙, 고래머들, 포제동산, 감굴, 한라봉, 천혜향, 마늘, 콩, 양배추, 콜라비, 브로콜리 등
🏆 행복마을 성공비법	• 적극적인 청정자연 지킴이로 거듭난 주민들 • 내가 먼저 앞장서는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설계 • 지속가능한 마을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





적극적인 청정자연 지킴이로 거듭난 주민들

어느 농촌마을이든 마을발전을 위해 인구수를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마을을 발전시키자는 명분으로 마을시설을 건축하고,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등 하드웨어적인 면에 치중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마을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에 우리 마을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곶자왈 목장과 감귤농장이 넓게 분포돼 있는 제주도의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인 청수리 마을도 개발사가 마을에 골프장을 건설했을 때의 각종 개발이익을 제시하자 골프장 유치로 인한 주민들의 찬반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주민들은 마을의 미래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곶자왈 등 청수리 마을 자연환경의 깨끗함을 강조하고 농촌의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마을을 가꾸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마을소유 65만여평의 청수리 공동목장은 제주 생태계의 보고인 곶자왈 지역으로 다양한 야생식물과 야생화 등이 자생하고 있으며, 곶자왈의 가치를 재인식하여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중 운문산 반딧불이의 최대 서식지로 확인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주민 하나하나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습니다.

후세에도 반딧불이가 사는 청정한 환경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고 이러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 체험 및 생산·판매로 소득원을 창출하고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자생력과 자구력을 갖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앞장서는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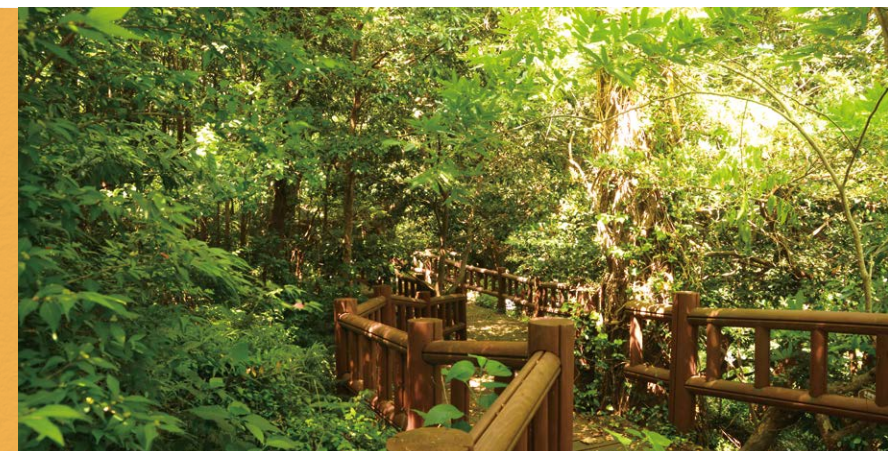
청수리마을도 '녹색 체험마을', '색깔있는 마을'과 같은 농촌지역 개발 사업이 시작 할 당시에는 농촌관광으로 인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으나 마을 지도층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생기면서 리더양성 교육 등을 통한 의식변화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초청 교육 등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면서 마을주민들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마을 발전계획에도 환경을 살리면서 소득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는 마을 주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한 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주민의 건수렴을 위해 마을 전체회의 및 단체별 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투명한 사업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짚이야'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먼저', '다 같이 함께'라는 생각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안목을 키우며 마을전체를 위해 주민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주 청수리마을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마을 전체회의 및 단체별
 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투명한 사업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마을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



마을경관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2010년 베스트 특화마을 사업자로 선정되어 아름다운 제주 야생화 가로박물관을 건립하여 일회성 또는 단순 미관 조성에서 탈피해 환경보전과 관광 자원화를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수리 마을 주민 전체가 참가한 반딧불이 지킴이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수리 꽃자왈에 서식하는 반딧불이를 보존하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청수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청수리의 다양한 마을 자원을 소개, 자연보존을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마을주민들을 위한 합창단, 도예, 고사리 첼로단 등 재능기부자들과 함께 주민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현재 청수리 마을은 꽃자왈 생태체험, 승마체험, 반딧불이 축제 등 지역의 환경자원을 활용해 환경훼손 없이도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2년 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 2013년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 2016년 행복마을 콘테스트 경관, 환경분야 3위 등 가시적인 성과도 이뤄내고 있습니다.



제주 청수리 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앞으로 청수리 마을이 추구하는 마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A 국내 운문산 반딧불이 최대 서식지라는 장점을 살려 반딧불 생태체험을 통한 과학의 이해, 생태계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자연스럽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아가는 역할을 하는 마을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농촌모델 창출을 목표로 행정력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력과 자구력을 갖춘 반딧불이의 불빛이 모여 희망의 큰 빛을 발산하는 마을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청수리마을 이장 고영국

마을사업성과

① 청수리마을 방문객수 실적 현황

구분	계	당일	숙박	견학	기타
2011	27,063명	18,273명	6,700명		2,090명
2012	1,956명	1,213명	336명		407명
2013	4,312명	3,877명	320명		115명
2014	11,177명	3,575명	626명		6,976명
2015	9,509명	3,119명	0명		5,940명
계	54,017명	30,057명	7,982명		15,528명

② 청수리마을 매출액 실적현황

단위 :천원

구분	계	체험	숙박	음식	농특산물	기타
2011	872,000	58,000	635,000	135,000	44,000	0
2012	16,908	8,164	2,840	4,214	1,509	181
2013	62,470	54,241	0	2,743	3,257	2,229
2014	107,180	47,713	12,200	40,517	6,650	100
2015	115,872	56,117	0	57,324	2,430	0
계	1,174,430	224,235	650,040	239,798	57,846	2,510

정부 지원실적

사업명	지원부처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주요사업내용
			보조		자부담	
			국비	지방비		
생태환경마을조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	2006.07~2006.08		39.8		가마오름 탐방로 정비
생태환경마을조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	2006.07~2006.08		87		꽃자왈 산책로정비
마제품판매장시설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2008.10~2009.09		300	80	판매장시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림축산식품부	2009.02~2009.12	420	280		다목적회관시설(웃뜨르빛센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림축산식품부	2009.02~2009.12	190	82	68	청수승마체험학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2009.02~2009.12		25	2.8	표고버섯체험장
제주형지역공동체사업	제주특별자치도	2011.05~2011.12		100	11.11	착한먹거리사업
농어촌축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2011.10.08~2011.10.9	20	20	10	웃뜨르축제지원
꽃자왈생태숲길탐방 조성공사	제주특별자치도	2012.3~2012.12		280		테크시설, 정자
친환경방문객조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	2012.5~2012.8		33		리모델링, 물품구입
색깔있는마을육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	2012.12~2013.2		35	3	마제품판매장리모델링
자연생태우수마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2015.05		25		우체통제작, 문패만들기
청수리공중화장실설치	제주특별자치도	2015.06		70		7명
생태마을보전활동비지원	제주특별자치도	2015.11		30		모진홀물복원



입선



자연과 함께 3대가 행복한 마을

횡성 어둔리마을

오음산 자락에 자리잡은 어둔리 마을의 자원은
 자연환경과 어둔리 사람들 입니다
 개발보다는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가꾸며
 이야기가 있는 마을로 가꿔 나가고자 합니다.

‘어둔리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 위치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금계서로 467
👤 인구수	100명
🏠 가구수	49가구
🌿 마을 자원	산야초, 수세미, 옥수수, 감자, 단호박, 고추, 버섯, 한우
🏆 행복마을 성공비법	• 마을의 새로운 활력소, 난타 공연단 •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 • 3대가 행복한 마을을 위한 이야기길 조성



마을의 새로운 활력소, 난타 공연단

어둔리 마을은 전체 가구수가 49가구의 작은 산간 오지 마을로 10여년전, 주민들의 고령화로 소통이 어렵고 이웃과의 단절도 문제였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특별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단절된 상황을 '문제'라고 인식하는 분위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마을은 점차 침체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귀농귀촌인이 생겨나고 가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젊은 이장님이 마을 일을 맡게 되었고 마을에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원주민들과 귀농귀촌인, 다문화 가정의 함께 생활하며 마을의 그림들을 다시 그리게 되었고, 젊은이들 중심으로 '난타'공연단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화합을 위하여 새롭게 시작된 난타 공연단을 통해 마을은 새로운 활력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마을에는 농악대가 있어 마을 행사에 농악놀이의 팽과리 소리가 울려 퍼졌으나 주민들의 고령화로 단절되어 있었는데 '난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결성된 젊은 연주단이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매주 1~2회 마을회관에 모여 난타 연습을 하고 있으며, 공연이 있을 때에는 주 3~4회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지역에서 소문이 나 이웃 마을행사나 면민 체육대회, 축제의 식전행사 등에 초청되어 다양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난타 공연을 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농번기 이외에는 보기가 힘들었던 마을 주민들이 일주일에 2회 이상 실시하는 연습시간을 통하여 주민들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 마을단합이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 이 변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



주민들간의 소통과 화합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레 마을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농촌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어둔리에서는 마을 자원을 개발하기 보다는 소중한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고 가꾸어 아름답고 행복한 마을로 만들자는 데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2015년 마을규약을 제정하고, 2014년부터는EM생활재를 만들어 천연세제 사용운동을 펼치는 등 주민들 스스로 할 일을 분담하여 마을 생태환경을 보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어둔리는 마을 주위가 오음산을 중심으로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어둡다는 뜻으로 어둔리라 하였고, 또 흥천에서 횡성으로 오는 길목으로 역졸들이 주둔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도 있는 곳으로 크고 작은 11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는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인 오음산을 보존하기 위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휴식년제를 실시하여 계곡 출입을 통제하고, 산나물 불법채취를 감시하는 등 마을 자원인 오음산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흥천 어둔리마을은
EM생활재를 만들어
천연세제 사용운동을 펼치는 등
주민들 스스로 할 일을
분담하여 마을 생태환경을
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대가 행복한 마을을 위한 이야기길 조성

어둔리마을 주민들은 오음산 같은 중요한 마을 자원을 개발하기 보다는 소중한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고 가꾸어 아름답고 행복한 마을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외형적인 변화보다는 '이야기가 있는 테마마을'로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마을의 스토리를 가시화 시키기 위해 마을정비 및 마을 가꾸기를 함께 실시하게 되었고, 마을에 자생하는 야생초와 토종 유실수를 이용하여 경관조성 및 볼거리를 만들고 정월대보름에는 달빛 축제를 개최에 방문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강원도 향토 먹거리가 있는 오음산 산약초 밭상과 연계한 이야기가 있는 산골 농촌관광형 명품마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차별화된 농촌형 경관 환경을 조성하여 이야기가 있는 산골,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주민이 참여하여 가꾸는 마을, 그래서 3대가 행복한 마을이 바로 어둔리 마을입니다.



횡성 어둔리 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마을 주민들이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대표적인 행사가 있나요?

A 우리 마을은 절반 이상이 새로이 다문화가정을 이루었거나 귀농·귀촌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마을 대표적인 행사는 마을구성원들이 다같이 어울리는 정월 대보름 '달빛축제', 주민들로 구성된 난타공연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한기 산약초와 전통음식을 주제로 하는 부녀회교육, 마을 가을운동을 통하여 주민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둔리마을 이장 최현진

- 성과조사 -

마을사업성과

① 귀농귀촌자 수

구분 \ 연도	2015	2016(예정)	2017계획
귀농귀촌자수	18	20	20

② 공동체 활동 실적

구분 \ 동아리	난타동아리	부녀회	재능봉사단
회원 수(명)	12	9	12
활동 실적(회)	2015	5	5
	2016	5	10
	2017계획	5	10

③ 경관활동 실적

구분 \ 연도	2015	2016(예정)	2017계획
활동실적(회)	6	12	15

정부 지원실적

지원사업명	지원연도	지원부서	지원금액(백만원)	비고
행복마을만들기	2015	횡성군	1,000	
공동체마을만들기	2015	횡성군	1,000	



입선



전통이 만들어낸 기(氣)찬 풍경

영암 구림마을

2200년 선비정신과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한국내셔널 트러스트에서 선정한 '잘 가꾼 자연·문화유산 마을'인 영암 구림 마을

'구림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 위치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구림로 43-14
👤 인구수	1303명
🏠 가구수	628가구
🌳 마을 자원	왕인박사, 도선국사, 전통한옥, 100리 벚꽃길, 구림도기, 전통예절·혼례·놀이체험, 한지공예, 천연염색, 쌀, 콩, 깨
🏆 행복마을 성공비법	- 역사문화경관이 뛰어난 전통 한옥마을 - 대동계정신 계승과 주민 스스로 풍부한 역사문화 보존 노력 -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이 풍부한 마을



역사문화경관이 뛰어난 전통 한옥마을

구림마을은 우리나라 자연마을 가운데 그 풍광과 규모는 물론 더불어 사는 공동체라는 면에서도 으뜸이라고 자부합니다. 수많은 문화유산인 선비정신과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대동계를 필두로 한 마음 한 뜻의 정신이 살아 있는 어울림의 땅입니다. 올해는 한국내셔널 트러스트에서 선정한 '잘 가꾼 자연·문화유산 마을'로 선정된 곳으로, 약 22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마을입니다. 또한 일본에 문물을 전한 왕인박사, 풍수지리의 시조인 도선, 고려 태조 왕건의 책사였던 최지몽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국립공원인 월출산을 배경으로 단아하게 펼쳐진 전통한옥의 멋, 전통 돌담길, 그리고 마을 가운데로 흘러가는 청정한 구림천은 구림마을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마을경관입니다. 또 상대포구, 구림토기요지, 죽정서원 등 많은 문화유적이 보존된 곳이며, 주민들이 마을의 안녕을 위해 매년 올리는 당산제와 구림 대동계 등 민속문화자원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가 아름다우니 자연스럽게 도농교류의 장으로써 도시민에게는 휴양지와 학습공간이 되고 있으며 전통한옥은 민박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 하였고, 1986년과 1996년 2차례에 걸쳐 발굴된 구림도기 가마터를 보존하여 1990년부터 영암도기박물관을 개관·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림마을은 월출산과 구림천이 어울려 건축된 전통 한옥경관과 백제의 중요한 역사자원, 그리고 축제, 문화체험 등 문화예술활동이라는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있는 역사문화마을 그 자체로 발전의 동력을 지닌 곳입니다.



대동계 정신을 계승해 주민 스스로 역사문화 보존



구림 대동계는 500년간 존속되어오고 있는 마을의 자부심입니다. 구림마을 대동계는 1565년(명종 20년) 박규정과 임호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마을동계이며, 임진왜란 때 잠시 중단되었다가 17세기 초 중수와 재중수를 거쳐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구림마을의 전통 유산인 것입니다. 구림 대동계 문서를 보면 "동계 창건의 과정을 밝히는 내용과 함께 1609~1743년까지의 동헌 규약이 잘 보존되어 있고, 다 리나 도로의 보수 등 동리의 공동 사업에 관련된 약조가 있는가 하면, 태만한 사람을 벌하는 내용 등을 추가하여 상하 합계의 촌락 공동체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동계의 유산과 정신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면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 마을경관을 지키는데도 주민들이 스스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동계가 중심이 되어 분기별로 구림천 하천 주변 초화류 식재 및 쓰레기 수거활동, 왕인문화 축제 시 벚꽃길 주변 화단정비 및 잡초제거, 분기별로 마을안길 쓰레기 수거 및 훼손 담장 정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영암 구림마을은 대동계의 유산과 정신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면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 마을경관을 지키는데도 주민들이 스스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이 풍부한 마을

구림마을에는 96개 민박집이 형성이 되어있고, 왕인촌 주민자치회가 구성 되어 있어 구림마을을 찾는 내방객들이 사계절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왕인 벚꽃축제와 왕인 국화축제를 통해 이곳 구림마을의 향취를 만끽할 수 있으며, 특히 마을에서는 새해맞이 체험행사로서 구림마을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가지고 인절미 체험 등을 진행하고 이제는 거의 사라진 쥐불놀이, 달집 태우기 체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봄철에는 새 학기를 맞아 '가족유등 만들기 체험'과 함께, 벚꽃이 만개한 시기에 개최되는 왕인문화축제와 연계한 한지공예와 왕인역사 문화체험을 추진하여 문화와 전통이 깊은 수준 높은 체험관광의 진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나만의 도기만들기 체험, 부채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고, 그 밖에도 가족단위로 계절에 맞는 농산물수확프로그램과 잘 조성된 구림마을 돌담 힐링코스 걷기 프로그램도 인기있는 관광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림마을 훈장선생님이 진행하는 인성향상 예절학습과 외국인을 위한 전통 혼례 체험 등 교육적 가치가 높은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구림마을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암 구림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영암 구림마을의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요?

A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일을 지속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크게 3가지 마을 발전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림대동계의 규약을 계승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전통경관보존을 꾀하고자 합니다. 둘째, 구림마을의 경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간 진행해온 돌담길을 연결하고 다양한 마을 문화유적네트워크를 형성해갈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구림마을만의 경관을 활용해 내외국인의 문화체험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18년까지는 자연경관을 정비하는데 힘쓰며, 이후 전통경관을 복원하는 작업을 통해 '기찬 구림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해가고자 합니다.

구림마을 운영위원장 최남호

- 성과조사 -

마을사업성과

① 체험소득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예정)	2017계획
방문객 수(명)		7,606	1,767	1,864	3,000	4,000
소득 (만원)	수입	4,745	2,466	2,400	4,000	5,000
	지출	4615	2,366	2,400	3,500	4,000
	순수익	130	100	0	500	1,000

② 공동체 활동 실적

구분 \ 동아리	노래교실	부녀회	풍물	재능봉사단	공예
회원 수(명)					
활동 실적 (회)	2015				
	2016				
	2017계획				

③ 경관활동 실적

사업명	참여인원	사업내용
구림천 하천 주변개선(분기)	15-20명	구림천 주변 초화류 식재, 쓰레기 수거
왕인문화축제 도로환경정비(매년)	20-25명	벚꽃길 주변 화단정비 및 잡초제거
마을길 주변 환경정비(분기)	30-35명	마을안길 쓰리기 수거, 훼손 담장파악

정부 지원실적

지원사업명	지원연도	지원부서	지원금액(백만원)	비고
녹색농촌체험마을 / 팜스테이 마을 / Rural-20지정	2009	농림축산식품부	200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지정	2011~2012	농림축산식품부	-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2013	농림축산식품부	6,900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경쟁분야

농촌운동

제주 서귀포시 신도2리마을 **금상** 104

경북 상주시 밤원마을 **은상** 110

충북 증평군 통미마을 **동상** 116

전북 임실군 중금마을 **입선** 122

전남 광양시 지량마을 **입선** 128



금상



혼디(함께)만든 깨끗하고 아름다운

서귀포 신도2리 마을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신도2리 마을만의
아름답고, 색깔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제주도 수놓음 정신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가
완성해 가고 있는 복사꽃향기 가득한
마을입니다.

‘신도2리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도원로 30
👤 인구수	250명
🏠 가구수	122가구
🏡 마을 자원	소해수욕장, 도구리, 방사탑, 고인돌, 원담 및 연안생태학습장 등
🌟 행복마을 성공비법	• 주민 스스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다! • 생동감 넘치며 함께 만드는 신도2리 • 제주도 미풍양속인 ‘수놓음’ 정신을 배우다



주민 스스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든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신도2리 마을은 관광객 증가로 해안도로변 주위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마을환경이 악화되고 있었으며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과 고령화문제로 인해 마을분위기는 점점 침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을이장 및 리더들은 새로운 변화와 함께 주민공동체 회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대공감과 마을의 활력을 불어 넣고자 신도2리 마을만의 색깔 찾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3월 제주도내 선진 마을 답사 후 마을회의를 시작하였고 주민들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리더의 역할과 주민들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비전, 목표, 추진전략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렇게 시작하게 된 신도2리 첫 번째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는 마을 안길 진입로인 꽃길 조성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꽃길을 만들기 위해 주민 모두가 참여 하였지만 초기에는 가뭄과 관리소홀로 꽃이 시들어 버리는 문제가 나타나는 등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겨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마을 가꾸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등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행착오는 오히려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을꽃길 조성 이외에도 잡초제거, 마을 대청소, 올레길 청소, 해안가 정화활동, 소공원정비, 가로수관리, 복숭아 및 동백나무심기, 클린하우스 정비, 발담 조성 등 마을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가꾸게 되었습니다.



생동감 넘치며 함께 만드는 신도2리



신도2리 마을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월례 정기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마을주민들과 함께 매년 수시로 진행되는 선진지역 견학을 통해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마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학구민 체육대회, 향민회 체육대회와 마을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무릉도원올레 권역 모드락 축제, 주민밴드와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축제를 통해 주민들끼리 한 데 어울려 즐기며 이웃간 서로 더 가까워지고 똘똘 뭉친 단합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을이 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건축된 연안생태체험 학습장에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녀이야기 및 제주 전통 구멍뎌시, 보말잡이, 해녀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활력과 생동감 넘치는 마을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자긍심과 마을발전 위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마을 자연자원인 '도구리'를 모티브로 하여 도내 '이야기가 있는 마을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창의성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마을 자원이 살리면서 신도2리만의 개성을 살리는 1석2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서귀포 신도2리마을은 지속적인 월례 정기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마을주민들과 함께 매년 수시로 진행되는 선진지역 견학을 통해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마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미풍양속인 ‘수눔음’ 정신을 배우다

조건없는 나눔과 상부상조하는 ‘수눔음’정신은 이웃의 참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제주도 특유의 미풍양속으로 신도2리 마을은 마을 주민 모두가 공동 수눔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눔음 활동으로는 복사꽃길 조성과 폐자원 활용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신도2리 마을에서는 환경개선을 위한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마을공동으로 운영하는 폐자원 집하장을 설치하여 폐비닐 및 농약병을 한곳에 모아 수거하고 판매하고 있으며, 이 판매액으로 꽃모종을 구입하여 마을꽃길을 조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관정회의 시 폐자원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다가 폐현수막을 이용한 작업복과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주민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은 앞으로도 수눔음 정신을 계승하며 ‘신선이 사는 도원’이라는 마을의 테마처럼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주민 스스로 환경정비에 앞장서고, 마을을 아름답게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서귀포 신도2리 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우리마을만의 특색있는 농촌운동은 무엇입니까?

A 자발적으로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는 마을운동이 정착된 것입니다. 영농폐기물, 빈병, 농약병 등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꽃모종을 구입하고 있고, 비닐농사가 많지만 마을 어느 곳에서도 방치되거나 버려진 폐비닐은 볼 수 없어 다른 농촌마을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신도2리 마을은 바다가 접해 있어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시 어르신들부터 앞장서서 마을 복구부터 시작하는 등 마을 주민의 90%이상이 참여하는 주민주도 농촌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신도2리장 이정현

- 성과조사 -

마을사업성과

① 인구 및 가구현황

인구수(명)			가구(수)	비고
남	여	계		
126	124	250	122	2014년 기준

② 공동체 활동 실적

구분	동아리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회원 수(명)		25	35	67
활동 실적(회)	2015	29	27	23
	2016	29	27	23
	2017계획	29	27	23

③ 마을조직

마을조직명	개발위원회	추진위원회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어촌계/잠수회
참여인원	8	9	67	35	25	35

④ 신도2리마을 자매결연 현황

기관명	결연일	교류내용
모란회	2005.	마늘 등 농수산물

정부 지원실적

지원사업명	지원연도	지원부서	지원금액(백만원)				비고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무릉도원올레권역사업	2011~2015	농림축산식품부	6,106	4,200	1,800	106	신도1,2,3리 권역사업(농어촌종합개발사업)



은상



함께 생각하고, 함께 즐거운 행복마을

상주 밤원마을

마을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여 극복하였고
주민들이 즐거운 마을을 만들고자 노력했더니
사람들이 가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밤원마을’을 소개합니다

마을 위치	경상북도 상주시 내서면 서원3길 29-80
인구수	184명
가구수	88가구
마을 자원	밤원다남길, 체험휴양관, 밤원마을 도서관, 풍물패
행복마을 성공비법	• 수해로 잃은 삶의 터전을 이웃과 함께 극복 • 각자의 이익보다는 마을의 행복이 더 중요 •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수해로 잃은 삶의 터전을 이웃과 함께 극복

백두대간 자락에 자리한 밤원마을은 주변 산들이 마을을 꼭 안 듯 둘러싸고 있고 그 가운데로 맑은 이안천이 흐르는 아름다운 시골마을입니다. 그러나 6.25 한국전쟁 당시 화령일대는 격전이 벌어지던 곳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곳이며, 1998년에는 큰 수해를 겪으면서 밤원마을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마을의 이웃이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함께 이웃의 손을 맞잡으며 주택을 개량하고 농지와 하천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꾸준히 마을 진입로 코스모스길 조성, 하천둑 방길 벚꽃나무 식재, 마을공동창고 및 담벼락 벽화 그리기 작업을 통해 마을 경관을 조성하고 공간을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지금의 행복한 마을로 변화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밤원마을은 주민의 즐거움을 가장 우선시 하는 마을입니다.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밤원만의 색깔 있는 마을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어버이날에는 부모님과 함께 다양한 게임을 하며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쁨을 나누며 단순히 먹고 마시는 축제 이상의 의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전통놀이를 하며 어른들과 아이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마을의 문화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익보다는 마을의 행복이 더 중요



밤원마을을 가꾸는 일은 마을주민들의 기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민의 힘으로 마을을 위한 일들을 추진했으며 크고 작은 기부가 모여 마을을 가꾸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에 대한 애향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녹색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조성할 때 닦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민의 기부로 극복해 나갔던 것은 마을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억 원의 재원으로 멋진 황토방을 짓고자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때 마을의 젊은이들이 직접 두 손 걷어붙여 한옥의 서까래용 나무를 베고 다듬으며 자발적으로 봉사하였고, 체험관 곳곳의 필요한 물건들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 후 주민의 98%가 자발적으로 출자하여 마을 공동기금을 조성하게 되었고 그 기금을 바탕으로 지금의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계절 4가지 색을 가진 밤원다님길은 이런 주민들의 기부로 만들어 낸 또 다른 성과입니다. 누군가는 임야를 기증했고 누군가는 정성껏 길러낸 묘목을, 누군가는 자신의 생업수단인 중장비로 마을 일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기부도 중요하지만 밤원마을을 만든 건 주민들의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한가로운 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공동 작업에는 대부분의 주민이 참석하여 마을 곳곳의 제초작업을 하고, 봄철에는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등 지속적으로 마을을 가꾸어 나가며 마을의 행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주 밤원마을은
녹색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조성할 때 닦친 여러가지
어려움을 주민의 기부로
극복해 나갔던 것은
마을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밤원은 '젊은 마을'입니다. 마을에서는 언제나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 활력 넘치는 웃음소리로 마을 골목이 즐겁습니다. 마을에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포함한 청소년이 20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골 마을들과는 달리 30~40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귀농귀촌 가구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루어 낸 결과로 2010년 첫 귀농가구를 시작으로 현재는 10가구가 마을에 자리 잡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래 마을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위해 마을 어른들은 마을회관을 양보하였고 부모들은 직접 책을 채워가며 마을도서관을 마련했습니다. 마을발전의 가장 큰 힘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스스로 노력하는 밤원마을은 그래서 더욱 사람이 모여드는 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많은 아이디어와 힘은 밤원마을을 더 살맛나는 농촌마을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상주 밤원 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밤원마을의 최종목표는 무엇입니까?

A 사람 중심의 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을사업을 하다 보면 자칫 마을을 찾아오는 손님에게만 초점을 맞춰 마을의 수익향상으로만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마을은 밤원을 찾아오는 사람이 즐겁고, 밤원을 지키는 마을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조성된 밤원다남길을 더욱 발전시켜 예쁘기만 한 길이 아니라 다 남길에 마을의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합니다.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아내어 마을 공동체를 강화하고 마을을 찾는 사람들에게 게도 색다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길을 만들 계획입니다.

상주시 밤원마을 위원장 박정길

- 성과조사 -

마을사업성과

① 체험소득

구분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획
방문객 수(명)	수입	2,042	1,524	2,515	3,000	3,000
	지출	1,802	2,857	2,637	3,600	4,000
	순수익	1,552	2,186	2,236	3,000	3,000
소득 (만원)	순수익	250	672	401	600	1,000

② 공동체 활동 실적

구분	동아리	풍물패	부녀회	마을공동작업
회원 수(명)		10	20	전 주민
활동 실적 (회)	2015	-	월1회	년 7회
	2016	주2회	월2회	년 17회
	2017계획	주2회	월2회	년 20회

③ 연령별 주민 수

구분	연도	2012	2014	2016
총 주민 수(명)		175	176	184
연령	0~20	23	23	26
	20~40	38	29	28
	40~60	55	60	58
	60~80	52	53	57
	80~	7	11	16

정부 지원실적

지원사업명	지원연도	지원부서	지원금액(백만원)	비고
녹색농촌체험마을	2010	농림축산식품부	200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2014~2016	농림축산식품부	2,000	



동상



함께 물(水), 들(野), 인(人)다.

증평 통미마을

통미마을은 농촌 현장포럼을 시작으로 주민들 스스로 마을가꾸기에 공감하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의 색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통미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 위치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입장길 55
👤 인구수	87명
🏠 가구수	42가구
🌳 마을 자원	마을제단, 7송정, 고인돌, 마을방앗간
🏆 행복마을 성공비법	• 함께(3通) 가꾸는(3美) 통미마을 • 현장포럼 이후 마을 색깔만들기에 고민 • 아름답고 깨끗했던 마을의 옛 모습을 되살리기



함께(3通) 가꾸는(3美) 통미마을

2013년 농촌 현장포럼 사업 대상지에 선정되어 주민교육을 받게 되면서부터 통미마을 농촌운동이 시작 되었습니다. 통미마을은 지금까지 크게 마을 사업을 해오던 것도 아니었고, 큰 예산이 투입된 경험도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통미마을은 현재에도 많은 축사가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농촌 현장포럼을 시작할 때만해도 마을 입구에서부터 하천변을 따라 위치한 축사들 때문에 악취와 각종 해충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농촌 현장포럼이 마을에서 시작되자 축사나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축사 운영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포럼이 계속 될수록 많은 것을 배우게 된 마을 주민들은 마을 가꾸기에 공감하기 시작했고, 당장 누군가 희생하고 피해를 감수하자는 것이 아닌 단순히 각자 자신의 집이나 축사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유지해보자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민과 축사 농가(1通), 공무원(2通), 군인(3通)이 협력하여 '통미 마을을 깨끗하게 물(水), 들(野), 인(人)다.'는 목표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현장포럼 이후 마을 색깔만들기에 고민



농촌 현장포럼 이후에도 주민 역량 강화에 관심을 가지고 증평군청에서 지원하는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여 추가로 마을 주민들과 선진지역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선진마을 사례를 배우며 이렇게 마을을 잘 가꾸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체득하며 마을 주민이 스스로 마을을 아끼고 가꾸어야 한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통미마을을 앞으로 어떤 색깔을 가진 마을로 만들어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민끼리 마을의 미래를 주제로 소통할 일이 특별히 없었지만 현장포럼 이후에는 마을 회관에 주민들이 모이게 되면 마을 가꾸기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며 변화된 모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갈 것인지, 그 그림에 어떤 색을 입힐 것인지 통미마을은 항상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증평 통미마을은
마을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갈 것인지, 그 그림에
어떤 색을 입힐 것인지
통미마을은
항상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했던 마을의 옛 모습을 되살리기

통미마을의 옛 지명은 칠송마을로 칠송은 일곱(七)그루의 소나무(松)를 의미합니다. 소나무를 대표로 하는 청정한 이미지였지만 근래에 와서 크고 작은 축사 농가들이 들어오면서 마을 경관이나 주민의 쾌적한 삶터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다들 먹고 사는 개인사에만 주로 관심을 두다 보니, 마을을 청소하는 일은 명절 전 증평군청 주도로 열리는 연례행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촌 현장포럼 이후 많은 주민들이 마을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매월 1회 다 함께 모여 마을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미마을을 통과하여 흐르는 하천 주변의 풀숲은 때마다 정리해주지 않으면 무성해지고 지저분해져 경관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인근 군부대, 증평군과 함께 도랑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하천 및 제방주변 환경을 정비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축사를 신축하거나, 기존의 축사를 증축하지 않는 것,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에 주민들과 축사 농가들이 동참하는 서명 운동도 마을에서 벌였습니다. 자발적인 이 서명 운동을 통해 주민이 스스로 약속하고 지킬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적극적으로 농촌운동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현재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마을 가꾸기가 계속되어 예전보다 약취도 줄고 마을 경관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증평 통미 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통미마을의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요?

A 우선 마을 입구부터 하천변을 끼고 위치한 축사들을 가릴 수 있도록 가림막을 설치하고 축사 주변에 나무를 심어 경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을 안쪽에 담장이 무너지거나 훼손된 가구가 많은데, 담장 정리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담장을 정비하고 벽화를 그려 다시 깨끗하고 아름다운 통미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추가로 마을의 옛 지명인 "칠송"을 살려 일곱 그루의 큰 소나무를 재현한 칠송 공원조성, 마을 내에 청동기시대 고인돌 자원을 활용하여 고인돌 공원조성과 오래된 정미소를 정비하여 관련 박물관 만드는 것을 구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 성과조사 -

마을사업성과

① 공동체 활동 실적

구분	동아리	통미마을 추진위원회	노인회	부녀회	향후회	대동계
회원 수(명)		10	30	30	80	40
활동 실적(회)	2015	12	1	10	1	12
	2016	13	2	13	2	13
	2017 계획	14	2	14	2	14

정부 지원실적

지원사업명	지원연도	지원부서	지원금액(백만원)	비고
건강 장수마을	2010	농촌진흥청	105	
주민숙원사업	2014	충청북도	150	
창조적마을만들기	2016	농림축산식품부	500	



입선



평균80세 여배우들의 유랑극단 생생 스토리

임실 중금마을

‘빠르게 더욱 빠르게’와 대조되는 ‘느림속에 꾸준함’을 실천하고 있는 슬로공동체 중금 마을.

15종 재활용 분리수거를 위한 할머니 유랑극단이 생겨나면서 더 큰 교육효과를 불러왔고, 마을 공동체의식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중금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 위치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치즈마을 2길 19
👤 인구수	89명
🏠 가구수	31가구
👥 마을 자원	두부, 고추, 환경교육, 에너지체험
🏆 행복마을 성공비법	• 꾸준함을 실천하며 다 함께 가는 ‘슬로공동체’ • 할머니 유랑극단의 탄생으로 시작된 마을 공동체활동 • 지역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대안



꾸준함을 실천하며 다 함께 가는 ‘슬로공동체’

“만인평등, 만물평등. 이 하늘 아래 주인이 누구더냐” 중금마을 입구에 걸려 있는 현수막에 써있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인이고, 동등하다는 의미로 중금마을의 생활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문구이자 양식입니다. 중금마을의 주민들은 누가 시켜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해 당당한 일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 마을 주민들이 다같이 본인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중금 마을은 현대의 ‘빠르게 더욱 빠르게’와 대조되는 ‘느림속에 꾸준함’을 실천하며 느림속에 문화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변화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고, 이것을 이해하고 천천히 맞춰가는 것이 결국은 오래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만이 모든 것을 알고, 주민들은 잘 모른다’는 말은 중금 마을에서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을 주민들 모두가 마을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어 리더 한 명에 의해 마을 일이 결정되기 보다는 상호의견수렴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생’과 ‘협력’ 이 단어들은 중금 마을의 주민들이 좋아하는 말들로 자연환경보호도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다 함께 노력하고, 마을 환경보호를 위한 규칙을 정하고, 지켜나가며 ‘슬로공동체’로 다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할머니 유랑극단의 탄생으로 시작된 마을 공동체활동



중금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술선수범하여 마을의 규칙을 지켜나갑니다. 서로간 양심을 지키며 철저히 분리수거를 실시하게 된 계기는 바로 마을의 할머니 유랑극단에 있습니다. 마을의 유랑극단은 평균나이 80세 이상의 마을 어르신들이 평소 말투와 생각을 대사로 녹여내며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분리수거를 통해 해결한다는 마을이야기를 각색하여 연극으로 보여주는 공연으로 도시지역에서조차도 하기 힘든 15종 재활용 분리수거가 탄생하게 된 숨은 일등공신입니다. 유랑극단 공연이 마을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다른 교육들보다도 더 큰 효과를 불러왔고, 유랑극단을 통해 마을의 즐길거리가 생겨 주민들은 더욱 잘 놀고,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중금 마을도 처음에는 다른 마을들의 사례와 같이 성과 위주의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으로 접근했었지만 그 결과 마을공동체가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차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을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고 공동체의식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유랑극단은 마을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연극에서 이제는 외부로 초청 공연을 다니기도 하는 등 마을의 대표 공동체 활동으로 자리 자리잡으며 주민들의 삶과 이야기를 녹여내고 있습니다.

임실 중금마을은
유랑극단을 통해 마을의
즐길거리가 생겨 주민들은
더욱 잘 놀고,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역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대안

임실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지역으로 이들의 다양한 복지 정책에 대한 고민이 깊은 실정이었습니다. 중금 마을의 대표 자원인 유랑극단은 주민들이 마을의 변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국으로 순회공연을 다닐 정도가 되었으며, 유랑극단을 통해 참여한 주민들은 작게나마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자존감을 강화 하는 등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유랑단과 같은 문화 활동을 통하여 각각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공유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문화복지를 증진 시킬 수 있어 노인인구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금 마을에서도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하나의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특색 있는 마을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이제는 마을내 환경문제와 에너지 자립에 대한 생각을 다음 세대까지 연결하기 위해 중금 마을 어린이 극단을 창단하여 문화를 통한 의식 흐름의 변화도 도모 할 계획입니다.



임실 중금 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앞으로 마을이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A 깨끗한 중금마을을 위하여 자원순환마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 없는 마을, 안버리고, 안태우고, 재활용이 철저한 마을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를 자연에서 공급받는 에너지 자립마을이 되어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의 천연에너지를 마을에서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중금마을의 대표 공동체자원인 유랑극단도 더욱 활성화하여 참여인원도 늘리고, 가능한 연극 종류도 더욱 늘려 마을주민들이 행복하고 잘사는 마을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게 우리마을의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임실군 중금 마을 위원장 김정흠

- 성과조사 -

마을사업성과

① 공동체활동 실적

구분	동아리	노래교실	유랑극단	분리수거
회원 수(명)		6	9	마을주민
활동 실적(회)	2015	월 1회	1	상시
	2016	월 1회	3	상시
	2017계획	월 1회	5	상시

정부 지원실적

지원사업명	지원연도	지원부서	지원금액(백만원)	비고
향토산업마을사업	2010	전라북도	200	



입선

사람이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어가는

광양 지랑 마을

백운산 자락의 국사봉 아래에 위치한 지랑 마을은
수어진 맑은 물을 따라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며
사람냄새가 나는 곳으로 가꾸어낸 행복한 마을입니다.



‘지랑마을’을 소개합니다

📍 마을 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지원길 32
👤 인구수	187명
🏠 가구수	87가구
🌳 마을 자원	조산정, 매실, 밤, 감, 애호박, 고사리, 취나물
🏆 행복마을 성공비법	• 주민이 하나되어 마을의 활력을 위해 노력 • 다양한 외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마을 발전 도모 • 태극기 휘날리며 마을 재탄생을 기원



주민이 하나되어 마을의 활력을 위해 노력

지랑마을 주민들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마을에 대한 미흡한 지원 속에서도 단합된 주민공동체 활동 및 의견수렴, 소통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균등하게 높이고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을 초입에 자리잡은 조산정은 예로부터 마을의 행사와 활동, 회의 공간이자 여가시간을 보내는 쉼터로 활용되며 마을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무너져 내린 정자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 생업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주민들은 힘을 모아 공동체 공간을 복구하고자 노력하였고, 주변 경관관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마을 가꾸기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공동체 힘으로 옛 것을 보존하고 가꾸고자 함께 모여서 교육을 받고 선진지역 견학을 다니면서 마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주민들 모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소통과 화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졌으며, 주민들간의 돈독한 유대관계는 마을 발전과 주민 공동체 구축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외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마을 발전 도모



조산정과 함께 지랑마을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마을앞을 흐르는 청정한 수어천입니다. 마을 부녀회가 앞장서서 수어천을 가꾸어 나가는 중, 진상면 농업협동조합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수어천 제방에 매화꽃, 백일홍을 심고 꽃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꽃길이 풍성한 아름다운 마을풍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꽃길을 만드는 것 외에도 마을담장을 아름답게 정비하기 위해 '지랑마을의 꿈'이라는 주제로 마을 담장에 벽화를 그리게 되었고, 이 벽화 작업은 독서모임 '동행'회원들, 디자인 학원, 지역봉사단체가 공동 진행하여 완성하였으며 벽화에 그려진 매실과 매화는 마을 분위기를 생기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저소득자의 건강증진과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인 '행복드림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광양서울병원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마을발전사업을 시작하려는 마을인 만큼 아직까지 그 실적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 다양한 협력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마을발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광양 지랑마을은 마을발전사업을 시작하려는 마을인 만큼 아직까지 그 실적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 다양한 협력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마을발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마을 재탄생을 기원

지랑 마을은 깨끗함과 고요함을 간직하고 있으며 넉넉한 인심과 온정이 가득한 곳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농촌도 잘 살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모두가 한 가족처럼 서로 화합하여 마을 곳곳을 사람냄새가 나는 곳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랑 마을을 들어서면 마을 곳곳에 태극기가 휘날립니다.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되는 대한민국이기를 기원"하고자 마을 앞과 골목에 대형태극기 70개를 준비해 한 달간 게양하였는데, 이 태극기 게양이 끝난 후에 그 자리에 바람개비를 꽃아 마을의 명물 가운데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나라사랑은 지역사랑이고 지역사랑은 곧 마을사랑이라는 생각으로 '마을 재탄생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실행했던 의미있는 일이었습니다. 마을을 가꾸고 마을을 꾸려가는 주민들의 정신이 건강한 마을이 바로 지랑마을 인 것입니다.



광양 지랑마을 이것이 궁금해요!

Q 마을개발과정에서 특별히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A 1970~1980년 이후 마을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공동체 정신이 약화되고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이 없어 마을운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마을을 가꾸기 위한 작은 공동체활동이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결국 농촌운동은 겉으로 보이는 치우고 정리하는 활동에 앞서 주민과의 끈끈한 우애와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발전 속도가 다소 느려지더라도 함께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가 있을 때 마을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광양시 지랑 마을 대표 이근취

- 성과조사 -

마을사업성과

① 경관활동 실적

사업명	참여인원	사업내용
진상면 수어천 제방 꽃길가꾸기	10-15	수어천 제방 코스모스 식재, 풀매기
광복 70주년 기념 태극기 게양	70-80	70개 태극기 마을 도로변에 게양
제방둑길 정비	30-40	제방둑길 꽃매화 및 백일홍 식재
마을 대청소(매년 4회이상)	70-80	쓰레기 수거, 풀매기, 회관등 청소
벽화 조성	20-25	봉사활동을 통한 벽화 조성

② 공동체 활동 실적

구분	동아리	행복드림 서비스	달집태우기	건강걷기 운동	경로회 관광	마을공동체
	회원 수(명)	65세이상 주민	주민일원	주민일원	65세 이상 주민	주민전체
활동 실적 (회)	2015	—	—	—	1회	12
	2016	매주 월,수	1회(2016.2)	1회	1회	12
	2017계획	매주 월,수,금	1회(2017.2)	2회	1회	12

③ 마을 자체 사업비 추진 실적

지원사업명	지원연도	지원부서	사업비(백만원)	비고
제방둑길 꽃길 조성	2015	면사무소, 지랑마을회	50	
마을입구 아치 설치	2015	지랑마을회	8	
마을입구 표지석	2006	지랑마을회	6	
조산정 LED 안내판 설치	2015	지랑마을회	1.2	
국기 게양대 설치	2015	지랑마을회	5	

정부 지원실적

지원사업명	지원연도	지원부서	지원금액(백만원)	비고
마을안길 및 농로 정비	2016	광양시	700	
제방둑길 꽃길 조성	2015	면사무소, 지랑마을회	50	
조산정 준공	2002	광양시	20	



한마음으로 뭉친 화합의 장, 우리 마을 행복 더하기 제3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3월

개선사항을 반영한
콘테스트 평가계획 수립

‘제3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는 평가의 분야, 방법 등이 개선되었습니다. 기존 마을가꾸기 시군 분야에서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의 실제 주체가 되는 읍면과 마을 분야로 확대 되었습니다. 작년 과정평가와 종합평가로 진행했던 단계를 현장종합평가의 한 단계로 통합하고, 시도 추천 54개소 중 24개소를 제외시켜 결선에서는 30개소만 경연을 겨루게 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했습니다. 또한 도농교류 촉진을 위해 도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을 특산물 전시·판매부스 설치 및 농촌여행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확대하고, 심사위원으로 소비자단체 및 블로거를 위촉해 심사·구전 홍보에 앞장섰습니다.

4월~6월

다양한 홍보를 통한
더 많은 ‘행복마을’ 찾기

콘테스트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접수를 시작했으며, 전국 지자체 담당자 회의 및 관계자 사전설명회를 바탕으로 콘테스트 홍보, 참여유도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와의 협업, 포스터 및 온라인배너 제작, 유관기관 웹진·블로그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로 콘테스트를 더 많은 농촌마을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콘테스트는 전국에서 2,664개 마을이 참가를 신청했으며 이는 지난해 2,017개 마을보다 32%증가한 수치입니다.

7월

도별 콘테스트와
현장종합평가 실시

6월 25일까지 접수된 마을을 대상으로 7월초 도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도별 대표 54개소가 선정되었으며 도 콘테스트를 통과한 시군, 읍면,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종합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종합평가에서는 2016년 활동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해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각 분야별 상위 5개소 총 30개팀이 선출되어 콘테스트에서 최종 경합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8월

다양한 행복마을의
사례와 주민들의
열정을 보여준
축제의 장

8월 31일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제3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는 마을주민과 공무원 등 1,700여 명이 참가해 마을을 소개하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즐기는 화합의 장을 열었습니다. 전문심사단 15명과 국민심사단 19명의 분야별 심사를 통해 우수팀을 시상하고 축하했습니다. 올해로 3년 연속으로 개최된 콘테스트는 그동안 감춰져 있던 우리 농촌 마을 공동체의 힘을 다시금 깨닫게 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행복마을의 모습을 보여주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마을 만들기 사례를 나누고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열린 하늘사이로 땀과 세상사람이 만나는 교차점
행복마을만들기는 늘 행복한 날들
늘 새로움이 가득한 마을의
행복한 이야기입니다